

우리문화

특집 | 문화관광축제 10년을 뒤돌아본다
문화여행 | '헤이리아트밸리' 사람들
발길따라 | 올 봄 바닷가 사찰로 떠나보시죠

2005 3.4

VOL. 175

전국문화원연합회



봄, 봄, 봄 문을 열어 보세요. 봄이 왔어요.
두꺼운 외투를 벗어 제끼고 나신(裸身)으로 서 있어도 따스한 봄입니다.
이 봄에 저 들꽃처럼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고 싶습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 문부과학상의 망언 등 규탄 성명



전국문화원연합회(회장 권용태)는 최근 일본 시마네현 지방자치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및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해야 한다'는 문부과학상의 망언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 민족문화의 뿌리인 지역의 향토문화를 발굴·육성하여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해 온 전국 222개 지방문화원장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민족문화의 뿌리인 지역의 향토문화를 발굴·육성하여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 하고 있는 우리 지방문화원장 일동은 전국 문화가족의 일치된 뜻을 모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독도는 서기 512년 우산국(于山國)이라는 지명으로부터 현재의 독도로 불려지기까지 천오백여년을 한결같이 역사적, 지리적, 문헌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일본 시마네현 지방자치촌이 '다케시마의 날' 운운하는 것은 우리의 국토와 국민에 대한 모멸적 도전이며 주권국의 영토를 침략하려는 망동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또한 일본 문부과학상이 역사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고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려는 작태로써 단호히 배격한다.

특히 금년은 한일수교 40주년이고 '한일우정의해 2005'로 정하여 양국간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는 작금의 현실을 비웃기라도 하듯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독도를 자국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소위 독도의 날 제정 조례의 즉각 폐지와 '독도망언'을 중단하여 진심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세계 인류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갈 것을 촉구하며, 다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외교성명을 대내외에 공표하라.

서울 구로문화원 개원

서울특별시 구로문화원(원장 장영신 張英信)이 2005년 3월 9일자로 법인 설립 절차를 마치고 3월 10일 오후 5시 50분 문화원 회원을 비롯한 문화가족 및 기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과 함께 개원 행사를 가졌다.

(사무국장 : 김정배, 과장 : 전천석, 간사 : 박미순)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02번지 (구민회관 2층)

전화 : (02)851-0837 팩스 : (02)951-0838

관광레저도시 추진기획단 출범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조성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문화관광부는 3월 31일 청사 앞마당에서 '관광레저도시 추진기획단' 출범식을 열고 범정부적인 조성작업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3월 2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조성을 역점 추진사업의 하나로 보고한 문화관광부는 2010년까지 3~4개의 관광레저도시를 조성한다는 일정에 따라 올해 4월 15일까지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6월경에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미래형 관광레저도시의 개별 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고유의 문화를 살리면서 다양한 레저 휴양 시설과 교육 의료 등 정주 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다기능 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속초, 유-트래블 시대 개막 선언

문화관광부는 4월 12일 강원도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속초종합관광안내정보 서비스 개통식'을 열고 유-트래블 시대의 개막을 선포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고 빠르게 관광안내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유-트래블은 '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이날 개통식을 여는 속초와 함께 안동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 중의 하나인 '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사업'을 위해 전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하고 지역관광안내정보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이 날 개통식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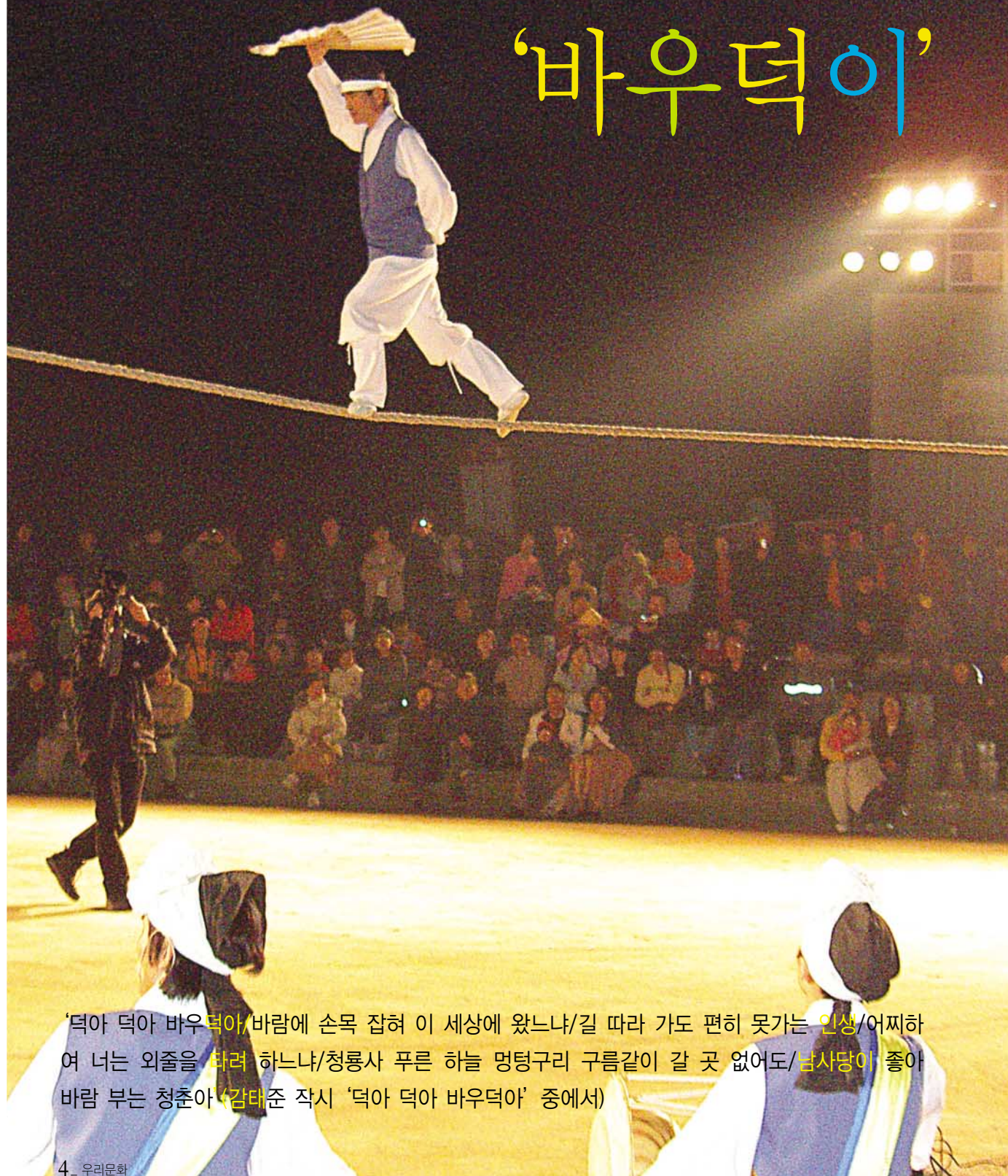


Contents

March · April 2005 _ Vol 175

- | | |
|--------------|----------------------------|
| 4 문화마당 | 세계로 가는 지역 문화 상품 '바우덕이' |
| 10 만남 | "3년후 공연예술 박물관 첫 삽 떴으면..." |
| 16 새 얼굴 | 강지원 전국문화원연합회 홍보대사 |
| 17 시 한편 | 새날을 맞이하자 |
| 18 문화탐방 | 한국 가무악의 미래를 책임진다 |
| 22 문화토론 | 충청지역 선비문화의 특성과 활용방안 |
| 33 특집 | 문화관광축제 10년을 뒤돌아본다 |
| 44 지역탐방 | 드라마 세트장 '虛'와 '實' |
| 48 문화정보 | '잡종 한류' 인가 '우리 한류' 인가 |
| 54 지역따라 노래따라 | 비 내리는 고모령 |
| 58 문화뉴스 | 과천문화원 '제10기 역사문화아카데미' 개강 등 |
| 68 역사마당 | 독도 20문 20답 |
| 82 발길따라 | 울 봄 바닷가 사찰로 떠나보시죠 |
| 78 문화여행 | '헤이리아트밸리' 사람들 |
| 84 책꽂이 | 우리문화를 쉽게 풀어 쓴 책 12 |
| 88 성과 로맨스 | '나의 아내를 차마 잊을 수 없습니다' (上) |

세계로 가는 지역 문화 상품 ‘바우덕이’



‘덕아 덕아 바우덕아/바람에 손목 잡혀 이 세상에 왔느냐/길 따라 가도 편히 못가는 인생/어찌하여 너는 외줄을 타려 하느냐/청룡사 푸른 하늘 멍텅구리 구름같이 갈 곳 없어도/남사당아 좋아 바람 부는 청춘아 (김태준 작시 ‘덕아 덕아 바우덕아’ 중에서)

지난해 아테네올림픽 문화행사에 참가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남사당놀이가 오는 5월과 8월 독일과 프랑스에서 한국의 멋을 선보인다.

주문형 낫그릇으로 유명한 안성맞춤의 고장

안성은 예로부터 낫그릇(鋤器·유기)으로 유명하다. 이 낫그릇을 주문자의 마음에 꼭 들게 잘 만들어 ‘안성맞춤’이란 말이 생겼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유기는 서민들이 사용하던 유기인 ‘장내기’와 사대부가의 주문에 따라 품질 모양을 좋게 제작한 ‘맞춤유기’로 나누어지는데 안성 지방은 ‘맞춤유기’로 더 소문나 있다.

조선후기의 학자인 서유구가 저술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는 전국에서 ‘안성의 유기가 으뜸으로 안성과 장호원의 장터에 많이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금은 중요무형문화재 77호인 장인(匠人) 김근수옹이 60년 동안 안성 유기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보다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문화 상품이 있다.

지난 4월 2일부터 오는 10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총 30회) 6시 30분부터 팽과리 소리를 시작으로 2시간 30분 동안 설장구 합주, 사물놀이, 살판(땅재주놀이), 덧뵈기(탈놀이), 버나놀이(가죽접시돌리기), 털미(인형극), 어름(줄타기), 상모놀이, 북춤, 풍물놀이, 무동놀이 등이 숨가쁘게 펼쳐져 주말 여행객으로 하여금 일상의 번잡함을 잠시나마 잊게 한다.

특히, 최근에는 올 12월 개봉예정인 ‘왕의 남자’에 출연하는 인기 영화배우 감우성과 이준기씨가 외출타기등 광대수업을 받고 있어 여행객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잘하면 살판이요 못하면 죽을 판이다.”

살판이 벌어져 어릿광대와 재주꾼이 묘기를 부리며 쏟아내는 재담에 마당을 둘러싼 5백여명의 관객 사이에서는 한바탕 폭소가 터진다.

이어 인형의 목덜미를 쥐고 있다는 말에서 유래된 인형극 ‘털미’가 막이 올라 인형 연출자 ‘대잡이’와 대화자 ‘산반이’가 나무와 천으로 만든 인형을 움직이며 재담과 노래를 펼치자 아이들의 눈망울이 밤별처럼 초롱초롱해진다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드디어 남사당놀이의 압권인 외출타기 공연이 시작되자 이내 장내가 숨을 죽이듯 조용해졌다.

외출타기는 ‘얼음 위를 걷듯이 조심스럽다.’는 뜻에서 어름이라고 불린다. 마당 한켠에 앉은 악사들의 반주를 신호로 어름산이(줄광대)가 부채 하나 달랑 들고 3m 높이의 줄 위로 올라선다.

어름산이는 지난해 세계 ‘줄 빨리타기’ 대회에서 1등을 한 권원태씨.



어름산이는 “뭘 볼 것도 없는 공연 보러 먼 길들 오셨네.”라며 익살어린 인사를 건네고 관중들은 이내 폭소가 터진다. 그 순간 어름산이 몸이 한쪽으로 기울

뚱 거린다.

아~슬 아~슬.
분명 어름산이가 장난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관중들은 손에 땀을 질 수 밖에 없다. 어름산이는 더욱 흥이 났는지 고난도의 곡예를 보여준다. 20여 분간에 걸쳐 재미만점, 스틸만점의 기예를 선보인 공연은 어름산이가 줄 반동을 이용해 하늘로 수차례 1~2m 가량 정중 정중 솟구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빙글빙글 접시를 돌리는 버나놀이 역시 부모의 손을 잡고 공연장을 찾은 초등학교 자녀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가족으로 둥글고 넓적하게 만든 접시를 버나라고 하는데 담뱃대나 기다란 나무로 버나를 돌리면서 하늘 높이 던지고 받기를 번갈아 한다.

어린이를 어깨위에 태우며 노는 무동놀이는 7명이 탑을 쌓는 칠무동까지 선보인다. 아이를 많이 낳기를 기원하고 신동을 받든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밤별이 총총해 지기 시작하는 9시 무렵 공연을 지켜보던 관중들은 마당으로 나와 한복을 입은 공연단과 손을 맞잡고 풍물에 맞춰 더듬실 춤을 추며 대형 원

을 만드는 것으로 뒷풀이를 한다.

아테네 이어 5월 독일 프랑스서 초청 공연

안성시는 그동안 무형문화재로 명맥을 유지해 오던 ‘안성 남사당 보존회’를 2002년 5월에 ‘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으로 재창단해 3년째 ‘남사당놀이 토요상설공연’을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남사당놀이는 지난해 8월 아테네올림픽 문화행사에 우리나라 대표단으로 참가해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멋을 선보였다는 호평을 받은 ‘관록’을 지니고 있어 주말을 맞아 서울 경기 충청지역으로 부터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오는 5월 주독 한국대사관의 ‘2005 한국방문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독일 최대 박람회인 슈투트가르트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초청공연을 갖는데 이어 8월에는 프랑스로 순회공연을 떠난다.

풍물단의 전신은 조선 최고의 처녀 꼭두쇠인 바우덕이의 후예들. 이름이 김암덕(金岩德)이라 바우덕이로 불렸던 그녀는 남사당패 100여명을 이끌며 남사당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다 23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우리 나라 최초의 여자 꼭두쇠.

이같은 바우덕이의 애잔한 전설은 여행객들의 마음



을 짚하게 올리며 남사당놀이에 대한 흥미를 배가시키고도 남는다.

1848년 태어난 그녀는 다섯살 때 병든 홀아

비를 떠나 남사당패에 들어와 기예를 배웠다.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과 미색을 겸비해 경북 궁 복원공사 때 풍물놀이를 벌여 대원군으로부터 정3품

벼슬아치에게 주는 옥관자를 하사받은 일화로도 유명하다.

안성 청룡 바우덕이 소고만 들어도 '돈 나온다/안성 청룡 바우덕이 치마만 들어도 돈 나온다/안성

청룡 바

우덕이 줄 위에 오르니 돈 쏟아

아진다/안성 청룡 바우덕이 바람결에 날도 떠나간다'란 노래가 그녀의 미모와 기예를 말해준다. 그러나 바우덕이는 21살에 폐병에 걸려 꽃다운 나이인 23살에 요절하고 만다. 그녀의 시신은 그녀를 사모 하던 마흔 살 나이의 이경화란 남사당에 의해 이름없

는 냇가에 묻혔다고만 전해진다.

그녀의 무덤은 안성시내에서 남쪽으로 한들을 돌려 57번 지방도를 타고 서운산 자락의 배밭길을 달리다 보면 나온다. 그러나 그녀의 무덤엔 그 흔한 비석조차 없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다만 안성시가 10여년 전 전해오는 구전을 바탕으로 서운산 자락 청룡 저수지 아래의 개울가에 커다란 가묘를 만들어 그녀의 예술혼을 기리고 있다.

공연이 없는 겨울철 전국에서 1만여 명의 남사당패가 몰려 신참자인 '빠리'를 교육하고 기예를 연마하던 곳은 서운산 자락의 불당골. 바우덕이 가묘에서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아담한 청룡호수를 끼고 5분쯤 달리면 마주하게 된다.

이곳은 봄이 되면 사회적으로 천대 받았던 남사당패들의 설움과 한을 해학과 예능으로 승화시키다 세상을 떠난 바우덕이의 삶을 위로라도 하듯 새하얀 배꽃 물결이 일렁인다.

곳곳이 배 과수원인 안성은 어느 곳에 가도 배꽃을 구경할 수 있지만 서운산 자락의 배밭길을 옆에 두고 바우덕이의 후예들이 줄을 타고 있는 남사당으로 달리는 것은 또다른 감흥을 안겨다 준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연예집단

조선후기 미모의 여성 바우덕이가 꼭두쇠가 되면서 ‘전성기’

남사당패(男寺黨牌)는 민중들이 스스로 형성 발전시킨 유랑예인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사당패의 연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이미 신라 이전에 떠돌이에인 집단이 있었고, 그들이 남사당패 놀이중의 하나인 꼭두각시놀음을 했다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남사당패의 연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남사당패는 우두머리인 꼭두쇠를 정점으로 그 아래에 4~5명의 연희자를 갖는 놀이 집단으로 일정한 거처가 없는 독신 남자만의 남색 사회이다.

꼭두쇠는 패거리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고 그 밑에 곰뱅이쇠(꼭두쇠의 보좌로 놀이 마당을 열어도 좋다는 사전 승낙을 받는 일을 맡아보는 사람), 뜯쇠(각 분야의 선임 연희기능자), 가열(각분야의 연희기능자), 빠리(초입자), 저승패, 등짐꾼 등의 40~50여명으로 구성된다.

남사당은 풍물, 버나, 살판, 어름, 덧뵈기, 덜미 여섯가지 놀이를 가지고 일정한 보수 없이 숙식만 제공받으면 마을의 큰 마당에서 밤새워 놀이를 했다. 남사당패의 대상지역은 주로 농어촌의 마을과 서민들의 민촌으로서 더울 때는 북쪽, 추울 때는 남쪽으로 옮겨다니며 팔도를 떠돌아 다녔다. 그리고 때로는 만주, 북간도에까지 가서 놀이를 한 적도 있다고 전해온다. 이처럼 놀이 대상이 농어촌이나 민촌이었기 때문에 놀이 시기도 모내는 시기부터 추수가 끝나는 늦은 가을까지였다.

즉 가장 힘들고 어려운 농사기에 남사당패가 한마당 연희적 축제를 벌임으로써 서민들의 노고와 신분적 갈등을 카타르시스화 시켰던 것이다.

남사당패는 서민층이 공동체적 생활 속에서 자연 발생으로 생겨난 민중놀





이 집단으로 관노, 관원놀이와는 달리 그 기록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대개 농사가 끝난 겨울은 부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남사당패에게 최악의 계절이었다. 이때는 안성을 비롯한 전국에 있던 그들의 은거지에서 기예를 전수 시켰다.

남사당은 조선 후기 장터와 마을을 다니며 춤과 노래, 곡예를 공연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연예집단으로 그 최초발상지가 안성이다.

당초 남자들로만 구성되었으나 바우덕이라는 미모의 여성이 꼭두쇠가 되면서 전성기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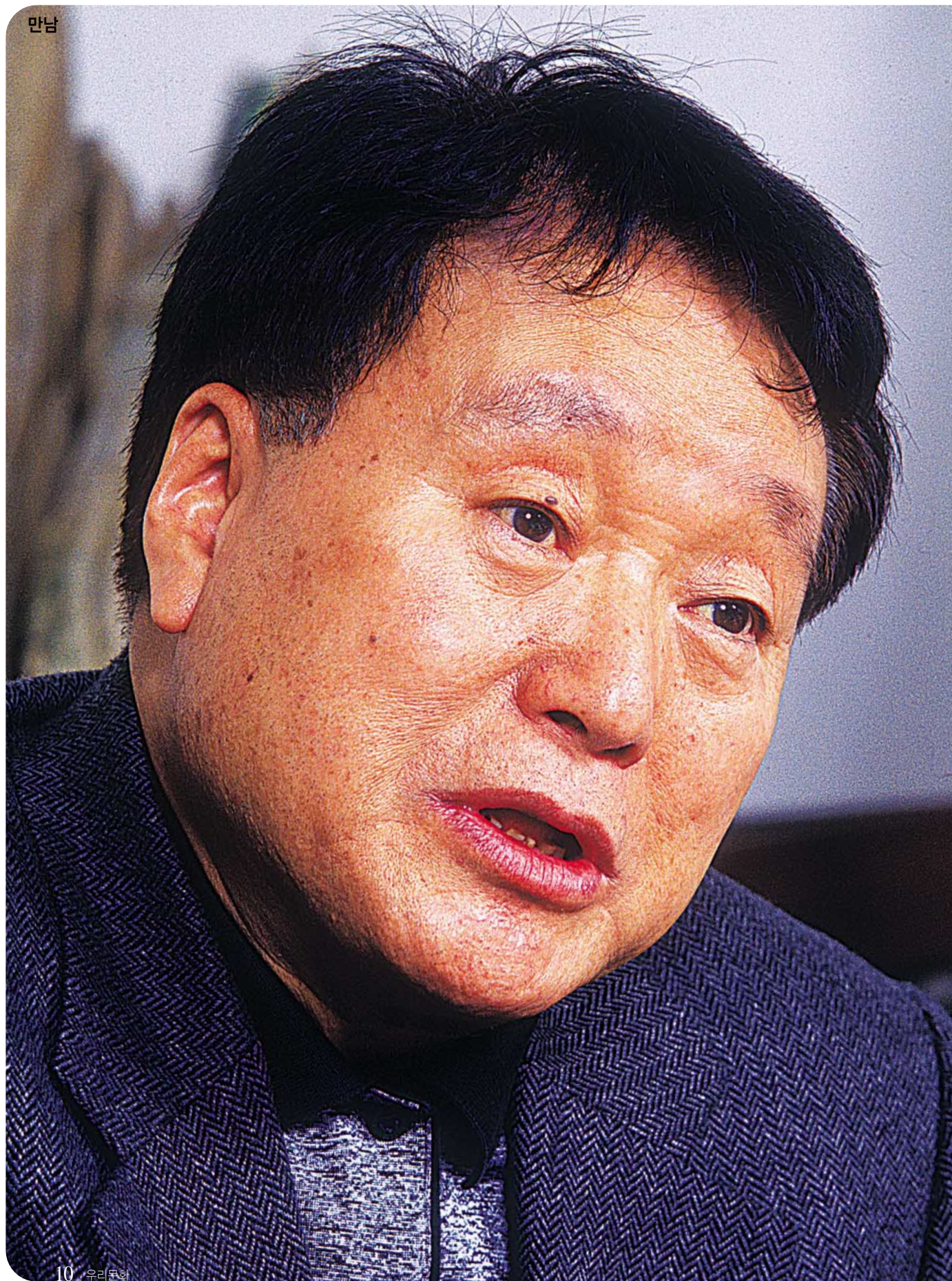
1848년 안성에서 태어난 바우덕이는 성은 김(金)이고 이름은 암덕(岩德)으로 암(岩)을 바위로 풀어 바우덕이라고 불렸다. 15세의 나이로 꼭두쇠로 추대된 바우덕이는 뛰어난 미모와 당대 최고의 기량으로 남사당패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예인이라 할 수 있다. 경복궁 복원공사때 풍물놀이를 벌여 대원군으로부터 정3품 벼슬아치에게 주는 옥관자를 하사받은 일화로도 유명하다.

그때부터 옥관자를 두레기 위 부분에 달고 그 깃발의 아랫부분에는 오방을 상징하는 빨강, 파랑, 노랑, 검정, 흰색의 오색 삼기를 달았다.

그후 어느 마을의 두레기든지 이 두레기를 마주하게 되면 기수를 숙여 기배를 표했다하여 영좌(領座)농기라 했으며, 세월이 지나면서 안성농악을 영좌농악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바우덕이가 23세의 꽃다운 나이에 요절하고 일본의 민족문화말살정책이 강화되면서 빛을 잃어갔다. 그러다 3년전 안성시가 바우덕이의 예술정신과 남사당의 민족민중문화를 전승하자는 취지로 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을 재창단함에 따라 다시 옛날의 영화를 되찾게 됐다.

글 _ 김미진 기자
사진 _ 김석화 기자



한국 연극계의 산증인 이태주 예술감독. 그에게는 대학교수, 연극평론가, 前서울시극단장 등 여러 꼬리표가 따라 붙어 다닌다. 현재는 셰익스피어 월드 프리덕션 회장으로 평소 가슴 깊이 지녀온 또 하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태주 한국 공연예술박물관 및 도서관 건립추진위원장

“3년후 공연예술 박물관 첫 삽 떼으면...”

한국 연극계의 산증인 이태주 예술감독. 그에게는 대학교수, 연극평론가, 前서울시극단장 등 여러 꼬리표가 따라 붙어 다닌다. 현재는 셰익스피어 월드 프리덕션 회장으로 평소 가슴 깊이 지녀온 또 하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8년은 1908년 우리나라 연극 사상 최초로 이인직의 ‘은세계’를 원각사에서 공연한지 100년이 되는 해. 이 때에 맞춰 국내 최초로 공연예술박물관과 도서관의 주춧돌을 쌓는게 연극계 원로로서 그의 꿈이다. 기자가 한 마디 운을 떼자 이 감독은 그동안 생각해 왔던 소신을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달변이었다.

일전에 신문에서 보니 공무원들이 문화부를 많이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문화의 세기가 오는 것인가요?

아, 그래요? 듣지 못했던 뉴스인데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는 징조겠네요. 하지만 냉정히 말해 지금 우리 문화계는 큰 위기에 처해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를 크게 네 가지 문제로 보는데 그 첫 번째가 문화 예술계 장

관들이 자주 바뀐다는 것 입니다. 새로운 장관들이 올 때 마다 ‘문예 진흥이다’ ‘문화 발전 계획이다’ 하면서 슬로건을 걸고 나오지만 정작 이 장관들이 오래 못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정책은 자꾸 바뀌고, 문화정책에 일관성이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간은 흘러도 문화 발전이 답보상태에 빠지는 거죠.

둘째로, 우리 문화는 ‘관’ 주도 문화라는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문화 예술에서 ‘관’은 뒷바라지 개념이어야 하는데 ‘관’이 위에서 지도하니 예술이 자유롭게 발전 못하고 구속을 받는 겁니다. 관 주도의 인사·예산 정책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문화 예술계의 전문가를 써야 발전이 있을텐데, 그렇지 않고 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관리를 맡고 있으니 늘 제자리인 겁니다.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 오래된 이런 관행들이야말로 우리 문화계 발전을 저해한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우리는 지금 목표가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란 것이 국민을 문화 국민이 되도록 문화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문화 국가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위한 이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건데 그렇지 못하단 얘기죠. 문화가 정치 후원을 받으며 시원스레 발전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은 우리 정치가들의 문화 의식이 외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 그들의 높은 문화 의식은 바로 극장 로비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연을 하는 극장 로비에서 만나 정치 이야

기를 하고 나라 이야기를 하는 외국 문화가 바로 그들의 문화 의식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이전에 ‘베니스의 상인’ 공연을 세종문화 회관 소극장에서 공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서울시 국회 의원분들께 모두 초대장을 보냈었는데 몇 분이나 오셨는지 아십니까? 딱 한 분만이 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근래 국회내에 극단이 생겨 의원들이 의사당 안에서 직접 공연도 하고 연습도 자주 갖는걸 보면서 이들이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구나 하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정치가, 재벌가, 기업가, 아니 이 나라의 엘리트들이 먼저 앞장서서 문화 예술을 사랑하고 지원하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시적인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체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나눠먹기식’ 지원으로는 올바른 작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예술계에 창조적인 우수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에 연극영화과만 50여개가 되지만 그 질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 볼 수 있죠. 질이 낮은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교육이 형편없기 때문이죠.

20여년 전 겨우 단국대 연극영화과를 만들어 놓고 보니, 교육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당시에 영화 편집을 가르치는데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가

르치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카메라와 편집기를 사러 발품 팔며 시장을 돌아다녀 봤지만 제대로 된 물건이 없어 결국은 LA 허리우드까지 날아가 찾았어요. 그런데 이곳의 카메라 창고에 가보니 장비들이 수도없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 몇 개를 들여와 사용했었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교육 여건은 안 좋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과 당 주임교수가 3~4명에 불과하지만, 선진국에서는 60~100명에 이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는 부족한 시설과 인적자원을 하루 빨리 채워 나가야 합니다. 좋은 인재는 이런 제반 사항들이 따라 줄때 나오는거고 이런 좋은 인재 속에서 훌륭한 창조가 나올 수 있는거죠.

말씀을 듣고보니 지금 문화예술계 쪽이 위기라는 말이 실감이 나네요. 그럼 이번 공연예술박물관 건립도 이런 이유에서 시작한 것이지요.

사실 지금 하는 일이 첫 삽은 아닙니다. 제가 공연예술박물관을 설립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 30여년 전 쯤이니까요. 숭실대 재직시절 박물관의 필요성을 느껴 자료 수집을 위해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다 덕성여대에서 연극박물관을 만들어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 후 덕성여대로 자리를 옮겨 박물관 관장을 맡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된 것인지 박물관이 점점 역사, 미술관으로 변해가더라고요.(웃음) 그러던 차에 단국대 총장에게서 박물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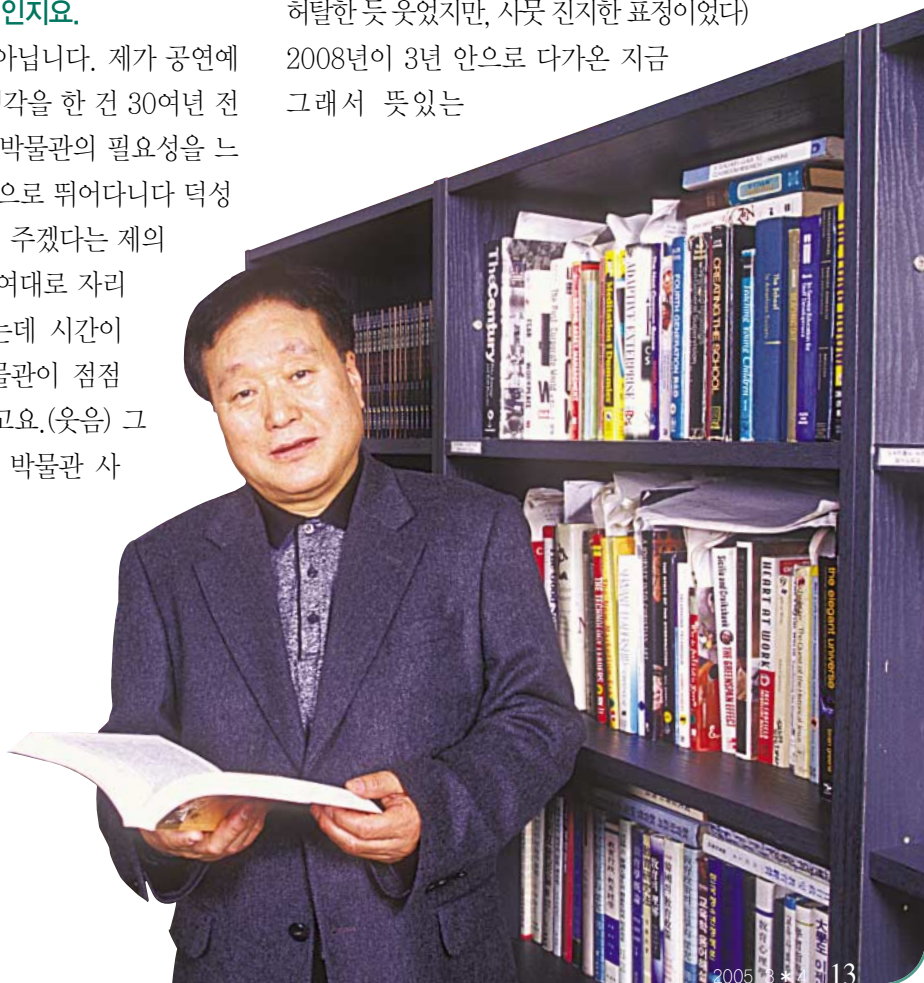
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 후 학교당국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극박물관 설립에 도움을 줬습니다만 갑자기 학교에 위기가 찾아와 거기서 멈추어야 했지요. 그렇게 오래 전부터 이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2008년이면 근대 연극이 들어온지 10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지난날의 예술 기록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문화 역사를 담은 소중한 자료와 유물들 또한 윗세대의 원로분과 함께 사라져 가고 있고요.

공연예술박물관은 물론 전문 도서관 하나 없으니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지켜나가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개인이 할 사업이 아니라 나라에서 해야하는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외국에서 한국예술을 연구하러 오겠다고 연락이 올 적마다 창피해서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는 허탈한 듯 웃었지만, 사뭇 진지한 표정이었다)

2008년이 3년 안으로 다가온 지금

그래서 뜻있는



분들과 함께 다시 시작 하려고 합니다. 사라져가는 공연예술자료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할 수 있는 단체로 만들고 향후에 자기 반성적이고 대안제시형의 문화 공간으로 역할 해야겠죠. 박물관은 일단 교통이 좋고 극장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세종문화회관을 생각하고 있어 추진 중입니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시장님과 오찬을 갖고 여러 예술계의 대표자들과 함께 당장 물건들을 놓아둘 창고라도 마련해 달라며 계획수립을 요구하긴 했는데... 이런 작은 일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네요. 물론 계속하여 미적거리다보면 저희도 굶치지 않고 국민운동까지라도 펼칠 생각으로 정부를 눈뜨게 할 계획입니다. 사회 전반적 여론을 만들어, 우리 국민과 정부가 빨리 문화 예술 박물관의 필요성에 대해 눈을 뜨게 만드는게 급선무라 보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와 관계한 큰 프로젝트도 준비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요.

오는 5월 강화도 갑곶에 1차로 공연예술영상타운이 들어섭니다. 1만평 넓이에 서울시청, 과거 중앙청 등을 재현해 놓 계획이죠. 영화나 드라마 촬영으로 쓰이겠지만, 장기적

으로는 수십배에 이르는 넓은 터를 확보해서 공연장과 공연예술대학 등을 포함한 공연·영상 예술 센터를 만들 생각입니다. 특히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글로브 극장을 재현하고 셰익스피어 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광객들이 유적을 둘러보면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감상하고 그가 살던 삶을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겁니다.

(그는 이어 ‘셰익스피어 키즈’, ‘줄리엣은 열 네 살’ 등 10대에게 셰익스피어를 이해시키기 적합한 총체극 양식의 작품도 만들 계획이라 했다.)

평론가로서의 활동도 많으셨는데요.

당시 내가 평론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쪽은 거의 부재하다 싶었죠. 평론이란게 있어야 ‘잘된 것’ ‘못난 것’ 갈라줄 수 있을 텐데 좋고 나쁨에 대한 평가가 없으니 극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극잡지를 내기로 했죠. 하지만 그것도 4권정도 까지 발행을 하고는 비용 때문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결국 언론사를 찾아다니면서 연극평론이나 시론을 기고할 수 있도록 지면을 얻어내는 방법을 썼지요. 평론이 연극을 촉발시켰다고 저는 생각해요. 관객을 선동하고 논쟁을 일으키는거, 연극계랑 매일 같이 부딪히면서도 과거 구태의연한 연극에서 탈피



할 수 있게 한 것이 평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쿠스고요. (독재정권 당시 공연 정지까지 당하면서도 이 공연은 가히 최초로 관객 1만명 돌파를 이루는 등 폭발적이었다.) 그러나 평론가는 미움을 사는 직업입니다. 비판을 하는 것을 좋아라 하지만은 않죠. 평론가들은 ‘이빨’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평론이 살아있지 않으면 훌륭한 작품을 기대할 수 없어요. 현대, 요즘은 또 평론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향적인 평론이 죽은거죠. 그래서 연극이 잘 안되는 겁니다. 평론이 죽으면 연극도 안되기 때문이죠.

평론을 하다보면 집필까지 하고싶은 욕심이 생기시겠어요.

그런 욕심이 더러 들죠. 더 잘할수 있지 않나 하면서 말이에요. 평론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늘 욕만 먹고 돌아오는건 주먹질뿐이니 더 그렇대요. 하지만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남의 잘못을 지적 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해야 하겠지요.

카메라를 만지신다고도 들었는데 그 계기가 있으신지요.

이것 또한 박물관과 관계가 있죠. 연극사를 남기려

면 사진 기록이 남아야 하는데 제대로 된 사진 자료가 없는겁니다. 사진 전문가는 이쁜 그림만을 찍어오지 결정적 장면을 찍는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 내 스스로 카메라를 사다 그때부터 찍어온 게 30여년쯤 됐습니다. 요새는 옛 장터를 다니며 우리네 사람들, 우리네 이야기를 찍고 있죠. 도시화 바람으로 많이 사라졌지만 그 곳에 가면 생명의 리듬이 느껴지는게 신바람이 납니다. 우리네 몸짓, 방언, 인심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이 장터이기에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장터야 말로 다음 세대에 보여줄 좋은 교육 현장이란 생각도 들고말이죠. 이태주씨는 실제로 “장터포토클럽”이라는 모임의 회장을 맡으며 장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고 했다. 하얀 옷을 입는 우리나라 어르신네는 컬러 보다는 흑백 사진이 잘 어울린다는 그. 올 9월말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바다와 인간’이라는 주제로 전람회를 연다.

고희를 넘긴 적지 않은 나이에 모든 정열을 다 쏟아 부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이 아름답다.

글 _ 김보라 기자
사진 _ 김석화 기자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2008년이면 근대 연극이 들어온지 10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지난날의 예술 기록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문화 역사를 담은 소중한 자료와 유물들 또한 윗세대의 원로분과 함께 사라져 가고 있고요.

전국문화원연합회 홍보대사

강 지원



문화가 국민 생활 일부분이 되어야만 문화국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는 강지원변호사가 전국문화원연합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수년 간에 걸쳐 우리문화의 뿌리인 전통문화를 지켜오고 있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지역문화 활동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번 홍보대사를 수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변호사는 사법시험(18회) 수석 합격자로 78년 검사생활을 시작한 이후 서울지검公安부와 특수부 등을 거쳤다.

그러나 89년 청소년 교화기관인 서울보호관찰소장을 맡으면서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바꿨고 이후 서울고검 연구직을 자원해 청소년 문제 연구에 매달렸으며 검사로서보다 청소년 전문가로 더 알려지게 됐다. 1997년 설립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아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던 청소년 문제를 사회공통의 관심사로 끌어올렸다. 특히 유력한 검사장 승진 대상자였으나 돌연 명예퇴직을 신청해 화제를 모았다.

부인 김영란씨가 지난해 여성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되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에 공연한 오해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로 KBS1 라디오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강지원입니다'를 진행하다 스스로 방송을 중단한데 이어 로펌 대표와 변호사직 또한 사퇴하고 공익적 사건에만 전념하겠다고 발표를 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강변호사는 슬하에 두 자녀가 있다.

새날을 맞이하자

오랜 암흑의 어지러운 거리
무섭게 번쩍이며
휘젓던 칼날은 녹이 슬고
먼동이 트는 새벽
멈추었던 줄기에 생기가 다시 돌아
새날의 새 생명이 솟구친다

칼자국 지워져가는 조국 산하에
날이 새고 있나니
더 이상 눈을 감고 방황하면서
어둠 속을 헤매지 말자
속삭이는 장밋빛 뜨거운 향기
가슴을 열어 영혼으로 숨을 쉬자

감미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조국의 산하 빛이 내리노니
새날을 맞이하여
황금빛 쏟아지는 이 옥토에
문화의 꽃 활짝 피우며
심장이 박동하는 초원으로 달리자



김성진 | 시인. 함양문화원장
경남문인협회 부회장, 한국공간시인협회 부회장, 함양신문 논설위원 등
시집으로 황소의 울음소리, 겨울허수아비 등 10권, 평론집, 향토문화지 등 다수



한국 ^가歌^무舞^악樂의 미래를 책임진다

한국 전통예술의 미래는 인재양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공이 강한 한국 전통예술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이 한국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이다. 이론 중심의 예술교육이 아니라 실기 중심의 교육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적 전통예술 인재양성에 주력하는 전통예술원을 다녀왔다.



한 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이 위치한 서울 석
관동 캠퍼스를 들어서면서 기자는 묘한 감흥
이 일었다. 이 곳은 독재정권 시절 안기부가 자리잡
고 있던 과거 터이다. 여기에 문화예술인을 양성하는
대학 캠퍼스가 들어섰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는 아닐
까?

일반 대학 과정인 예술사 과정과 석·박사 과정인 예
술 전문사 과정으로 이뤄진 한국종합예술학교는 지
난 1993년 개교한 이래 12년의 짧은 역사를 자랑하

전공·성악전공·작곡(창작)전공으로 나뉘는 음악
과, 궁중무용·민속무용과 같은 전통춤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국춤을 모색하는 무용과, 각 지역의 무속·
탈춤·풍물 등 연희를 종합적으로 연마하는 연희과
로 이뤄져 있다.

각 과마다 기존 전통예술 교육의 한계를 진단하고 개
선방향을 토대로 효과적인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채택, 심도깊은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통예술원 신성웅 조교는 “전통예술원에는 분야별



고 있다. 모두 6개원(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
원, 미술원, 전통예술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한국 전
통예술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곳이 전통예술
원이다.

전통예술원은 악(기악), 가(노래), 무(춤) 중심의 전통
공연예술을 이론적으로 배우고 공연역량을 극대화해
새로운 시대에 적응 할 수 있는 전문인재를 길러내는
대학과정의 고등교육기관이다.

전통예술원은 전통공연예술의 체계정립·미학적 규
명·미래적 전망 등을 목표로 한 한국예술학과, 기악

전문 교육자료를 국내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다”
며 “무엇보다 문화관광부 소속기관 또는 각 지방단체
시설 등 기존 문화시설을 학습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현장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통예술원의 각 전공에서는 철저하게 실기
위주로 편성돼 있으며 이에 따른 이론과목들도 개설
돼 있다. 4개과의 전공분야 모두가 악·가·무 여러
장르의 기본을 고루 학습하도록 해 한국전통예술의
근본을 익히도록 한다.

또한 전통음악개론, 무용개론, 연희개론 및 장단실

기, 예술사 등의 공통필수과목은 전통예술의 전반적인 특징을 알게하고 나아가 동서양 예술의 이해를 통해 한국전통예술의 미래를 조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음악과

전통음악의 보존차원을 넘어서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연주와 창작역량을 기르고 연마한다. 기존의 전통음악을 철저히 익힌 바탕 위에서 새로운 연주법을 개발하고 레파토리를 확대해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연주역량과 창작능력을 극대화시킨다.

음악과의 교육내용은 성악전공, 창작전공으로 나누어 지고 기악전공은 악기별로 세부전공을 두되 전공분야별 최고 수준의 연주역량을 갖도록 하고 있다.

성악전공은 장르별 구분을 뛰어넘어 새로운 극음악의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정을 교육하고 있다.

창작전공은 순수음악은 물론이고 무용음악·극음악·배경음악과 실용음악까지 전통음악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 무용과

한국 전통무용의 참다운 구성원리와 다양한 예술형식을 실기중심으로 학습하고 연구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해 나갈 한국무용의 주역 양성을 목표로 한다.

1·2학년은 기초과정과 전통습득과정, 3학년은 전통재창조 실습과정, 4학년은 전통작품 발표 및 평가과정으로 이뤄진다. 전문예술인으로서 꼭 필요한 전문지식과 폭넓은 소양을 갖추도록 유도한다.

작품 발표회를 통해 무대경험을 하게 되고, 재창조 실습을 통해 감성을 풍부하게 표현해 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며, 기술적 방법 등을 터득하는데 중점을 둔다.

》》 연희과

한국전통예술의 여러 분야 중에서 풍물·탈춤·무속·남사당 연희 등 과거 우리민족의 생활 속에서 향유되고 전승된 다양한 전통연희를 실기중심으로 학습해 전통연희의 본질과 정서를 회복하고 나아가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민족의 생활속에서 향유되고 전승된 다양한 전통연희를 실기중심으로 학습한다. 전공의 구별을 두지 않고 한 학년의 학생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끔 유도한다.

총체적인 실기교육과 다양한 소양교육, 예술교육과정을 마련해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적인 전통연희인 양성에 힘쓴다.

》》 한국예술학과

전통공연예술의 학문적 연구를 1차 교육목표로 삼고 나아가 문학·회화·건축 등 전통예술 전반에 관한 역사적 탐구와 구조적, 미학적 규명을 통해 미래의 한국예술이 나아갈 방향 설정과 그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다른 원의 이론과의 밀접한 관련을 맺고 한국종합예술학교의 교양과목을 개발해 그 학문적 토대를 굳건히 한다. 기초과정에서 학문을 비롯한 외국어 능력과 전통예술 전반에 걸친 기본실기를 익힌다. 또한 인간과 관련된 인문학을 비롯한 예술연구 방법론의 토대에 다른 나라의 예술과 비교연구를 병행한다.

이러한 전통예술의 인재양성 교육과정은 졸업생들의 사회진출에서 그 내공이 입증되고 있다. 전통예술원의 졸업생들은 국립관현악단을 비롯해 수 많은 기성 전통예술단체에 들어가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그리고 우리 전통예술 문화역시 더욱 그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재가 필요한 이때 한국종합예술학교 전통예술원은 그 산파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국내외 전통예술 콩쿨 휩쓸고 있어”

전통예술 인력을 길러내는 전통예술원의 내공은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과 이론 토대를 갖고 있는 탄탄한 교수진이 원동력이다. 민의식 부원장을 만나서 전통예술원 교육내용의 장점과 특징을 들어 보았다.



- 전통예술원의 특징은.

다른 대학의 전통학과와 비교해 학생들이 많은 연습을 한다는 것이 참 인상적이다. 전통예술원에서는 연습실을 24시간 개방하고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원해 본인이 마음을 먹는다면 전공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남학생들의 경우 군대를 가면 바보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다. 왜냐하면 현 전통예술 관련 국내외 콩쿨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이 1~4등까지를 거의 석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학생들의 전공지도가 타이트한 편인가.

우리 대학은 창작을 중시한다. 학생들이 전통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가미한 다양한 전통예술을 창조하길 바란다. 그러다보니 1,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도 잘 쉬지를 못한다. 여름과 겨울방학 때에도 맹훈련을 하는데 외부 문화계 인사들의 특강 등을 실시해 학생들이 안목과 간접경험을 쌓도록 지도한다. 또 1년에 한번 모든 재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을 학내 무대에서 발표해야 한다. 전통예술을 확실히 지도하는 것이다.

- 신입생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국예술학과, 음악과, 무용과, 연희과 등의 전공에서 총 85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1차에서 전공

실기(130% 선발)를 보고 2차에서는 전공 악기, 논술과 시창을 공통으로 본다. 수능은 치르지 않는다. 대학원은 전공, 국악개론, 논술과 면접의 전형요소를 반영해 시험을 치른다.

-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는 어떤가.

우리 학교는 교수와 학생간에 격의 없이 대화하고 배우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 학생들이 교수실에도 자유롭게 찾아와 지도를 받는데 교수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뺏겨 일찍 퇴근을 할 수 없는 점도 있지만 학생들의 열의에 큰 보람을 느낀다.

- 전통예술의 가능성은.

점점 국악이 대중들에게 쉽게 접근하려는 노력들이 가시화 되고 있다. 내 주변에 있는 실내악단에서는 국악의 현대화, 대중화를 위해서 치열한 노력들을 하는데 이런 노력들이 계속되는 한 전통예술의 전망은 밝다고 본다.

충청지역 선비문화의 특성과 활용방안



1. 머리말

충청도 사람은 타 지역을 방문했을 때, ‘충청도 양반’, ‘충청도 선비’가 왔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충청도 사람을 대접해 주는 말이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받는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좋은 싫든 충청도인의 정체성이 반영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충청도의 전통문화, 선비문화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이다. 많은 경우 충청도가 왜 충청도인지, 선비는 어떤 사람을 지칭한 것인지, 충청도의 선비문화의 특성은 어떠한지 모르고 있다.

문화의 세기라 일컬어지는 21세기에는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전통문화자원이 경쟁력을 갖춘 지역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충청도의 경우에는 주로 백제문화와 선비문화가 거론된다. 백제문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선비문화는 활용 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못하였다. 본 발표는 충청문화의 역사적 특성을 선비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한 것이다. 먼저 충청도의 유래와 연혁을 통해 오늘날 지역문화범주로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충청문화가 언제부터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 충청도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문화성격의 차별성이 어떠한지 살펴본다. 이어 선비의 개념과 충청도 선비문화의 형성과 전개, 특성과 위상을 살펴보고, 충청도 선비문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충청도의 유래와 전통문화권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忠淸’이라는 명칭은 고려시대에 처음 등장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명은 고려시대부터 界首官의 머리글자를 조합하여 만들기 시작했는데, 충청 지역의 도명은 고려후기에 楊廣忠淸(州)道, 楊廣(州)道, 忠淸(州)道 등으로 사용되다가 충숙왕 원년(1314)부터는 양광도라는 도명으로 굳어져 조선건국초까지 이어졌다.

조선시대의 忠淸道는 조선초기인 1395년(태조 4)에 종전의 楊廣道가 바뀐 것이다. 양광도가 충청도로 개칭된 이유는 태조 4년에 도읍을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기고, 楊州·廣州 관할 郡·縣을 양광

도에서 갈라 京畿에 옮겨 붙이게 되자, 더 이상 양광도라는 도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충청도의 권역은 이 때부터 진정한 의미를 지니기 시작한다.

충청도의 도명은 충주·청주·공주·홍주 등 계수관 고을의 승강에 따른 일시적인 개호가 8도 가운데 가장 자주 있었다. 忠淸道라는 명칭 외에도 조선전기에는 忠公道, 淸公道, 淸洪道라는 도명이 사용되었으며, 조선후기에는 忠洪道 公洪道 公淸道 洪淸道 忠公道 公忠道 洪忠道 등의 도명이 사용되었다. 조선후기에는 조선전기의 도명 가운데 충공도는 사용되었으나, 청공도나 홍공도 용례는 보이지 않는데, 이는 아마 조선후기 공주에 충청도 관찰사영인 감영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공주를 충주 다음으로 예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영남, 호남처럼 충청도지역을 湖西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제천의 의림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서쪽이라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호서라는 명칭도 조선시대에 사용되기 시작한 표현이며, 조선후기에 이르러서야 보편화되고 있다. 이는 이때에 이르러서야 명실상부하게 충청도 전체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조선시대에 주로 충청도에 해당했던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공주목과 홍주목이 이 지역 행정의 중심지였다. 공주목과 홍주목은 고려시대부터 界首官 고을이었는데, 이와 같은 계수관 고을은 각기 지역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대전·충남지역은 크게 계수관 고을이었던 홍주를 중심으로 한 '내포[가야산]문화권'과 공주를 중심으로 한 '금강[계룡산]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최근 學界와 道政에서 동시에 주목받고 있는 內浦는 이중환의 『택리지』에 의하면, 금북정맥의 중심산인 가야산 앞뒤에 있는 열 고을을 지칭한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내포의 범주가 중심고을이었던 홍주목이 관할하던 영역인 서천에서 평택까지의 20여 고을이었다. 내포지역은 충청도 지역 중 서해안을 끼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충남의 내륙에 있는 계룡산은 금남정맥의 중심산이다. 錦南正脈은 전주 동쪽 마이산에서 북으로 치달아 대둔산, 계룡산을 거친 후 서쪽으로 망월산을 지나 부여의 부소산과 조령대에 닿는다. 육로교통이 발달한 오늘날과는 달리 수로교통이 중요



했던 전통시대에는, 산은 길을 막고 물은 길을 이어 주었으므로 전통시대에 이 지역을 이어주는 연결통로는 계룡산을 휘감아 흐르는 금강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을 ‘계룡산문화권’ 또는 ‘금강문화권’으로 부를 수 있다.

3. 충청지역 선비문화의 전개와 특성

선비는 한자어가 아닌 순수한 한국어이다.

따라서 ‘선비’라는 어휘의 용례에 대해서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으로 소급하기 어렵다. 선비가 언제부터 사용되던 용어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훈민정음이 창제된 직후인 조선초기의 기록에서는 선비의 고어가 ‘선빈’로 儒士·儒生을 뜻하였다. 이 선비는 시대에 따라 그 개념이 변해왔는데, 조선초기에는 고려 이후 유학을 공부하여 文翰을 전업으로 하는 문사를 지칭한 것으로, 유학을 공부하여 관리가 되려는 사람이나 관리가 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즉 儒者의 의미가 강하였다. 최세진의 『훈몽자회』(1527)에서도 儒가 ‘선비 유’로 풀이되어 있고, 그 뜻은 ‘도덕을 지키고 학문을 힘쓰는 사람’으로 설명되어 있다. 반면에 조선전기의 士는 유학과 관련된 경우에만 선비로 풀이되고, 士의 일반적 개념은 朝士, 즉 벼슬아치였다. 그러나 조선중기에 이르면 士가 선비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士가 朝士에서 儒學之士의 개념으로 확대된 것은 16세기 이후의 조정이 성리학을 수학한 士林들의 무대가 된 역사적 맥락과 관련 있는 것이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선비의 계속적인 증가로 벼슬하지 못한 이들이 선비의 대종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讀書曰士’라고 하여 士의 훈인 선비도 관직에 관계없이 유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다. 조선말기의 선비상은 벼슬하지 못한 자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벼슬하지 못한 선비가 증가함에 따라 士의 본래적 의미, 즉 벼슬로서의 의미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유교교양인을 관료로 선출하던 전통시대의 인재등용시험인 과거제도가 폐지되고(1894년), 근대 교육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나아가 일제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자, 더 이상 선비는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일제시대에 식민지 관료는 현실과 타협하면서 신학문을 공부해야만 되었다. 반면에 참된 선비는 식민지 관료가 되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하여 벼슬과는 관련이 없는 순수한 의미의 포의로 남

게 되었다. 이제 선비는 ‘학식이 있되 벼슬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오늘날 일부 국어사전에서는 선비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우리가 선비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은 이와같은 선비의 말기적 모습에 기인한다.

선비가 조선시대의 역사적 개념이듯이, 선비문화도 조선시대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조선시대의 유교문화가 모두 선비문화는 아니지만, 선비문화가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중심문화라고 할 수는 있다. 따라서 충청도 선비문화의 전개는 조선시대의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교가 시대를 주도한 것은 고려말 성리학의 도입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성리학을 수용하는데 정치적으로 앞장선 사람은 안향이지만, 원나라에 10년간 머물면서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돌아오면서 성리학 관계 서적을 다량 수입하여, 성리학을 가장 먼저 연구·보급한 사람은 충남 남포 출신의 백이정(1260~1340)이다. 백이정의 뒤를 이어 성리학 보급에 크게 기여한 것은 이곡(1298~1351)·이색(1328~1396) 부자를 비롯한 한산이씨 가문으로 이들은 지금의 충남 서천군 한산 출신이다. 선조 사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이개(1417~1456)는 이색의 증손자요, 기묘명현록에 올라있는 이자(1466~1524)도 이색의 후손이다. 사육신 가운데 성삼문(1418~1456)과 박팽년(1417~1456)도 충남과 연고가 있으며, 생육신인 김시습(1435~)부여 홍산 무량사에 부도와 영정이 남아 있다.

우리의 역사에서 한동안 역사의 뒤편길에 묻혀 있었던 절재 김종서(1383~1453)는 조선 세종조에 6진을 개척한 장군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문무를 겸비한 진정한 선비였다. 문과급제를 통해 벼슬길에 나아갔으며, 고려사와 세종실록의 편찬을 주관했고,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에 맞서 선비의 기개를 꺾지 않았는데, 바로 공주 출신이었다.

충청도의 선비는 16세기에도 박증(1461~1517), 이지함(1517~1578), 서기(1523~1591) 등 많은 인물이 있었지만, 17세기에 더욱 두드러진다. 조선 후기 유학의 흐름은 크게 기호학파와 영남학파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류는 기호학파였다. 조선시대의 학문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발달하였는데, 조선 후기 300년간의 중앙정계는 대체로 기호세력이 주도하였다. 기호학파의 기호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역과 오늘날의 충청지역에 해당하

는 호서지역을 가리킨다. 그런데 기호학파의 중심인물들은 호서지역에서 많이 배출되었다.

기호학파 가운데 율곡 이이의 적통을 계승하는 김장생(1548~1631)과 그의 제자 김집(1574~1656), 송시열(1607~1689), 송준길(1606~1672), 이유태(1548~1631), 조익(1579~1655), 김경여(1596~1653), 신흠(1566~1628), 그리고 김집 문하의 유계(1607~1664), 윤선거(1610~1669) 등이 충청도와 연고가 있다. 김장생·김집 부자가 연산을 중심으로 한 강학활동은 이 지역에 많은 선비들이 운집하게 하였으며, 이후 논산지역(연산, 노성)을 17세기 조선예학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송시열이 활동하는 시기에는 호서의 선비들이 중앙정계를 주도하고 전국을 영도하였다. 송시열의 적전은 권상하가 있었으며, 권상하의 문하에서는 이기론, 예론과 함께 조선시대 성리학계의 3대 논변 중 하나였던 人物性同異論爭[湖洛論爭]이 전개되었다. 이는 율곡의 주기론을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경기를 중심으로 하는 人物性同論[洛論]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하는 人物性異論[湖論]으로 갈리었다. 호론의 중심인물인 남당 한원진은 내포의 결성현 남당리[현재의 홍성군 결성면 남당리] 출신이며, 그의 지지자들은 예산의 병계 윤봉구, 매봉 최징후, 서산의 한간 김한록, 봉암 채지홍 등이 있다. 낙론의 지지자들은 주로 경기도에 살았지만, 중심인물인 외암 이간은 온양의 외암리[현재의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마을] 출신이다. 한원진의 적통이면서 기철학자로 유명한 녹문 임성주 또한 충청도 청풍 출신으로 공주와 연고가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성리학계의 3대 논변 중의 하나인 인물성동이 논쟁은 충남의 선비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었다.

조선시대 선비문화의 난숙기는 17세기인데, 이 시기의 주도적인 위상에 있던 유학자들은 기호, 그 중에서도 호서출신이 절대 다수였으니, 이는 선비 중의 선비라고 할 수 있는 山林도 예외가 아니었다.

산림은 조선시대 山谷林下에 은거해 있으며 학덕을 겸비하여 국가로부터 징소를 받은 인물로 山林之士, 山林宿德之士, 山林讀書之士의 약칭으로 林下之人, 林下讀書之人 등으로도 불리었다. 산림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향촌에 은거해 있으면서 유림의 추앙을 받았으며, 정계를



떠나 있어도 정치에 무관심하였던 것은 아니며, 정계에 진출해 있다 해도 항상 산림에 본거지를 가지고 있는 조선후기 특유의 존재였다. 이들의 명성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수양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과거를 거치지 않았으면서도 과거를 거친 관료보다 더 존중되는 선비였다. 그런데 17세기 산림의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현재 조사된 38명 가운데 충청도가 17명, 경기도가 7명, 경상도가 5명, 전라도·강원도가 각각 2명, 평안도가 1명, 미상 4명이다. 충청도 출신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 김장생(연산), 박지계(신창·아산), 강학년(연기·회덕), 김집(연산), 조극선(덕산), 송준길(회덕), 송시열(회덕), 권시(유성), 윤순거(노성), 이유태(금산·공주), 윤선거(노성), 윤원거(노성), 송기후(회덕), 이상(전의), 윤증(노성), 권상하(청풍), 이기홍(연풍) 등이다.

이외에도 신흠(1566~1628, 회덕), 윤희(1617~1680, 공주우거), 김만중(1637~1692, 회덕), 이중환(1690~1752, 공주), 박문수(1691~1756, 천안), 임성주(1711~공주), 김정희(1786~1856, 예산), 김항(1826~1898, 연산), 최익현(1833~1906, 청양) 등이 충남(대전) 지역과 연고를 갖는 대표적인 선비들이다.

황의동 교수는 충남유교문화의 특성에 대해 학문의 개방성과 다양성, 예 문화의 창출과 수준높은 문화의 향유, 의리적 도학풍의 진작 등을 들고 있으며, 기호유학의 중핵적 위치, 인물성 동이논쟁의 주도, 예 문화 창조의 주도적 위치라는 위상을 지닌다고 정리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충청지역 선비문화의 특성과 위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4. 충청지역 선비문화의 활용을 위한 제언

오늘날 충청지역의 선비문화는 내용과 위상에 비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선비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 활용도 또한 낮은 편이다. 충청지역 선비문화의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선비에 대한 왜곡된 인식, 부정적 인식의 극복과 탈피가 우선되어야 한다. 조선시대의 선비는 정치, 학문, 종교의 통합적 지도자로서 500년 이상 유교문화를 형성하고 이끈 역사의 주역이었

다. 조선왕조는 건국된 지 정확히 200년만에 7년간에 걸친 왜란을 경험하고, 다시 약 30여년이 지나 두 차례의 호란을 겪었으나, 국가는 망하지 않고 ‘再造’의 길을 걸었다.

양난을 경험하면서도 선비집단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지는 않았다. 조선후기에 선비가 지도층(지배층) 역할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선비문화의 상대적 건전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혹자가 갖고 있는 조선시대 선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조선왕조의 멸망이 성리학과 양반(선비) 때문이라는 논리에 기인한다. 망국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망할 당시의 지배층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조선망국의 책임도 상당부분 당시의 지배층이었던 양반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나라가 망한 책임을 같은 양반이라고 해서 수 백년 전인 조선 중기나 전기의 양반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

어느 나라이든 언젠가는 망하게 마련이고 망하기 직전의 사회는 대부분 타락하기 쉽다. 20세기 초에 조선이 망했다고 해서 조선중기의 양반이나 선비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오히려 조선시대 대부분의 선비들은 같은 시기 세계 다른 지역의 지배층에 비해 건장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었다. 사림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의 선비들은 오히려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지닌 인물이라 보수세력의 강한 견제를 받기도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기와 상황에 따라 ‘선비’라는 개념의 숨意는 달랐다. 따라서 선비문화의 속성을 논할 때에는 전성기의 문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 선비문화의 典範은 16세기와 17세기에서 찾아진다. 16세기는 士林이 조정에 진출하고, 화담 서경덕, 퇴계 이황, 남명 조식, 율곡 이이 등이 활동하던 시기이며, 17세기는 퇴계와 율곡의 후학들에 의해 영남학파, 기호학파가 성립되어 학문의 깊이가 더해갔다. 이 시기에 성리학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어 도학이 정립되고, 의리학이 발달했으며, ‘이기심성론’ ‘예론’ ‘인물성동이론’ 같은 성리학적 논쟁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 시기에는 선비 중의 선비라고 할 수 있는 山林의 존재가 주목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대, 특히 17세기를 주도한 중심인물들은 호서의 선비였다.

둘째, 충청지역 선비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정리가 필요하다. 조선시대에 많은 선비를 배출한 충청지역에는 유·무형의 유교문화자원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충남지역의 유교

문화자원은 고고유적이거나 백제유적에 비해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고고학 중심의 문화유적 조사가 진행되면서 유형의 유교문화재도 함께 조사되는 정도였다.

충남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보고서로는 『충남지역의 문화유적』과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이 있다. 전자는 백제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던 모 사업가가 설립한 (재단법인)백제문화개발연구원의 지원에 의해 1982년부터 1996년까지 15년간에 걸쳐 체계적인 문화유적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여기에는 유교유적이 한 분야로 취급되어 조사되었으나, 누정과 고택, 서당, 명현묘소 등은 유교유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전통건축이나 기타유적에 포함), 금석문(묘비, 신도비, 비석군 등)은 별도의 장이 설정되기도 하고, 유교유적에 포함되거나 기타유적에 포함되기도 하는 등 일관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조사과정에 유교문화 연구의 전문가가 거의 참여하지 않아, 조사결과에 부분적으로 오류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고고학 위주의 지표조사에, 유교유적조사도 함께 개략적으로나마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후자는 1998년부터 문화재청의 연차사업으로 전국 시·군 단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전은 금년도에 실시되고 있으며 충남지역도 금년도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된다. 유형의 유교문화재가 많이 조사되기는 했으나, 사업의 성격상 개략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지표조사 담당기관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기도 한다. 한편, 충청남도에서는 1990년부터 전문연구자에게 의뢰하여 분야별로 문화유적을 조사하여 책자로 출판하였는데, 『문화유적총람』의 금석문편 상·중·하(1993), 『충남의 향교』(1999), 『충남의 서원·사우』(1999) 등이 유교문화유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조사 및 집필이 해당분야의 전문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비교적 신뢰할 만하다. 유교문화와 관련하여 아쉬운 점은 종가, 서당, 정려, 누정, 전적 및 고문서 등의 조사와 연구가 계속되지 못한 점이다.

셋째, 선비문화자원의 적극적 발굴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의 세기라 일컫는 21세기는 문화가 국가경쟁력, 지역경쟁력의 척도가 될 전망이다. 문화가 고부가가치 상품이 되는 문화산업의 시대이다. 선비문화유산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매우 가치 있는 자원이다. 그런데 유형의 문화유산에 생명을 심어주는 것이 무형문화유산, 정신문화이다. 선비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은 이러한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비의 정신이 담겨있는 고문서·전적 등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수집이 시급하며, 무형의 선비문화유산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 향교와 서원 등 유형의 문화공간에서 과거에는 선비들의 많은 의식, 교육, 교화 등이 행해지고 있었으나, 오늘날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전통시대의 정려는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동구밖에 위치했으나, 현재는 대개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위치하여 정려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유형문화유산은 가시적이지만, 무형문화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난해하다고 생각하여 홀대한다. 이제 문화재정책은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할 시기이다. 단순한 보존만이 능사가 아니며, 적절한 활용이 전제되어야 효과적인 보존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교문화재(자원)는 그 본래의 기능을 살리면서 현대적 활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향교와 서원이라면 강학례, 석전제, 제향의식은 물론, 이곳을 거쳐간 명망있는 선비들의 자취, 일화와 전설까지 찾아내어 활용해야 한다. 1년 내내 비어있는 재실은 도시인의 주말 선비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에선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영남 유교문화권에 준한 기호유교문화권역의 설정과 개발의 추진을 제안한다.

호서 유교문화의 핵심자원이 밀집되어 있는 충남내륙지역을 기호 유교문화권역으로 설정하여 집중 개발하기를 제안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호서지역은 기호학파의 중심인물을 다수 배출하였다. 그러나 호서지역은 그 동안 영·호남에 비해 지역학 연구가 활발하지 못해,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유교문화자원이 매우 많다. 이와 같은 유교문화자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면, 더욱 많은 유교문화자원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알려진 향교·서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충남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해 밀집도가 높은 편이다. 조선시대 지방 관학교육의 중심지였던 향교가 호서지역(충청남·북도, 대전)에 56개소 현존하고 있는데, 이는 남한 향교 전체(234개)의 24%에 해당하는 것으로, 호서지역의 면적이 전국의 17%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교의 밀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충남의 경우에는 면적이 전국의 8%에 불과한데, 현존 향교수는 36개소(전국대비 15%)에 달하여, 향교의 밀집도가 더욱 높은 편이



다. 또한 조선시대 지방 유교문화의 중심지였던 서원·사우의 건립현황을 보면, 충청도에는 모두 118개소였으며, 이 가운데 사액서원은 39개소였다. 특히 호서의 유교문화자원은 논산을 중심으로 인근의 대전·공주·부여·금산·보은 등에 밀집되어 있어, 이 지역의 집중개발이 가능하다. 충청도의 내륙지역인 논산, 대전, 보은, 금산 등은 17세기 기호학파의 핵심적 인물들을 배출한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지금도 많은 유교문화자원이 밀집되어 있다.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장차 신행정수도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글 _ 임선빈 | 충남역사문화원 충청학연구부장

〈표〉 기호유교문화권과 영남유교문화권의 비교

구 분	기호유교문화권 (호서내륙중심)	영남유교문화권 (경북북부중심)	비 고
대상지역	- 6개 시·군 : 논산, 금산, 대전, 보은, 공주, 부여 - 면적 : 3,820.7km² (전국총면적의 3.8%)	- 11개 시·군 :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 면적 : 10,771.3km² (전국총면적의 10.8%)	- 호서내륙은 경북북부유교문화권의 약 1/3
유교문화의 특성	- 율곡학파(이이) - 이기일원론과 주기론 - 서인계(노론·소론) - 조선후기 여당(현실참여 강) - 호서내륙에서 중심인물 배출 ※ 다양한 학풍 공존 (人物性同異論爭) ※ 17세기 전국 山林 38명 중 17명이 호서(충청)출신	- 퇴계학파(이황) - 이기이원론과 주리론 - 동인계(남인·북인) - 조선후기 야당(현실비판 강) - 경북북부에서 중심인물 배출	- 조선 후기 유학의 주류는 기호학파 - 호서내륙이 기호학파의 중심지
유교문화 자원의 현황과 분포	- 호서지역 (27개 시·군, 16,558km²)의 향교수 58개소, 서원건립수 135개소 - 호서내륙에 집중 분포 (논산지역이 중심지)	- 영남지역 (45개 시·군, 31,351km²)의 향교수 71개소, 서원건립수 318개소 - 경북북부에 집중 분포 (안동지역이 중심지)	- 면적대비 호서가 영남의 약 1/2 - 호서지역은 유교문화 자원의 체계적인 조사 미 실시
정 책	없 음 (백제권 개발사업, 내포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기호유교문화권 개발 사업과는 무관)	-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계획 수립 (1999-2000, 약 6억원) - 11년간(2000-2010) 2조 2,666억원 투자 예정 - 경북도청에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단 설치	
종합평가 및 제언	- 한국유교문화권의 올바른 가치인식을 위해서는 영남유교문화권과 기호유교문화권에 균형적인 투자 필요 - 기호유교문화권의 중심지였으며 많은 유교문화자원이 현존하는 호서(내륙) 지역에 경북북부 유교문화권에 준한 개발계획 필요 - 호서 내륙의 유교문화권은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높아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		

문화관광축제 10년을

뒤돌아본다

- 성공축제 고작 10여 개
- 종합축제의 시대는 지났다
-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축제의 리모델링 사례

기획 _ 강민철 | 우리문화 팀장(mckang999@hanmail.net)

성공축제 고작 10여개

지역이미지 홍보와 지역이익기회창출의 수단으로서 최근 10년 사이에 활성화된 것이 「지역축제」라 할수 있다. 현재 국내의 지역축제는 이천도자기축제, 금산 인삼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영암왕인문화축제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개최되고 있는 약 1000여개의 지역축제나 된다. 어떻게 하든지 주목을 받는다면 관광객 유치와 매스컴이라도 탈수있게 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지역축제 붐」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지역축제 프로젝트의 기획이 그렇게 간단히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못하는데에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의 파급효과가 성공이나 실패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부담과 혜택은 고스란히 지역주민 또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 「성공하는 지역축제 만들기」를 위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지역축제의 관광자원화

1995년부터 외래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전국의 수많은 지역축제중에서 관광 상품

화의 가능성이 큰 축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해온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문화관광축제 육성사업은 지난 10년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해 동네잔치에 머물렀던 축제가 외국관광객이 찾는 국제적인 축제로 탈바꿈하여 성공한 문화관광축제가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문화관광부는 지역문화축제가 국제경쟁력 있는 관광축제로 발전되도록 축제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행사프로그램을 개발 및 개선하고 외국인의 관심을 끌수있는 축제를 기획하는 한편 도자기조합, 인삼조합 등 현지 민간업계의 협조로 축제기간동안 특산물 할인 판매를 실시하는 등 특색있는 축제로 개발하였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축제개최 9~10개월 전부터 포스터, 팸플렛 등의 홍보물을 세계 각국 현지사정에 맞도록 제작하여 해외문화원(5개소), 공사해외지사(20개소)를 통해 배포하고 외래관광객 모객광고를 실시하는 등 해외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여행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축제행사장과 인근 관광명소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 해외마케팅을 실시했다.

2004년도 문화관광축제 37개축제를 선정지원한 결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공사례가 있는 반면에, 컨셉 부재와 졸속 준비, 무리한 예산운영, 전문성 부족, 지역내부의 갈등, 외부전문가와 주최측의 불화등으로 실패한 사례도 많다.

과, 외국인관광객 23만명을 포함하여 총 2,286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경제효과 또한 8,352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발표)

2004년의 대표

적인 성공 사례를 살펴보

면, 도자기를 소재로한 이천도자기축제는 14억원의 예산투자로 24일간 개최하여 240억원, 인삼을 소재로한 금산인삼축제는 10억원의 예산투입으로 10일간 704억원, 전통탈춤과 안동의 문화를 마케팅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은 9억원의 예산투입으로 10일간 약 325억원, 웰빙미용소재

인 머드를 소재로한 보령머드축제는 4억 4천만원의 예산투입으로 약 333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각각 창출시켰다.

이렇게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공사례가 있는 반면에, 주제성 부재와 졸속한 준비, 무리한 예산운영, 전문성부족, 지역내부의 갈등, 외부전문가와 주최측의 불화등으로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다.

행정주도형에서 주민참여로

축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목적으로서는 지역과 사회의 미래상을 제시하는것과 지역활성화등을 들수있다. 과거에는 국가를 중심으로, 또는 지역행정단위를 중심으로 이러한 목적을 세우고, 실천해왔다. 20세기 후반의 대중사회 형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집권이 효율적이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국각지가 균등하게 발전해 왔다. 전국의 경제, 사회수준을 함께 높이고,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매우 유효한 체제였다.

지역축제도 이와같은 인식 아래 실시되었다. 행정당국의 제안으로 인해, 지역축제가 계획되고 개최되었다. 이것은, 지역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많은 보조금이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출되어 왔다는 것도 그 원인이 되고있다. 국가에는 지역개발이라는 큰 목적이 존재했고, 지방에는 시대변화와 함께 과소화와 고령화 등의 문제가 증대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서 지역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오히려, 지역축제계획의 첫단계부터 보조금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지금도 많은 지역축제가 보조금의 존재없이 개최할수가 없다.

또한, 사회가 대중사회 중심의 20세기로부터 개인중심의 21세기로 전환되었다. 집단의 구성원으로 파악되고, 타인과 똑같은 생활환경에 만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개성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개인의 특성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되는 시대가 되었다. 인생설계도 학교, 취직, 정년, 노후라는 전형적인 모델을 벗어나, 자원봉사와 모험 등 자유롭게 설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 지역의 활성화도 이러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자원봉사도 재해구호를 비롯해서 환경보호, 행정감시, 전통민속의 계승 등 한층 더 분야가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지역축제의 계획·실시도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축제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역의 특성과 욕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주민이다. 게다가 지역활성화의 직접적인 주역이기도한 주민이 적극적이며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지역축제를 실시할수 있다. 사실 기획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해서 축제를 개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주민의 자원봉사적인 참여로 인해 살아있는 축제가 되고 있다.

21세기 지역활성화의 대안 “지역마케팅”

한국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10년이 되었으며, 민선3기에 들어섰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직도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개최하는 문화관광축제는 지역이미지제고, 관광객유치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 지역문화진흥, 지역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문화관광축제를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는 추세다.

“충효의 도시”와 “문화관광의 도시”라는 동일한 슬로건을 내걸고 있고, 농촌지역의 지자체는 모두 “쌀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지자체의 상징인 CI에 있어서도 산, 물, 해 등을 소재로 어디나 비슷한 디자인과 색상이다. 주제가 똑같다 보니 지역축제도 비슷한 수준의 ‘먹거리와 난장’이 판을 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그래서 항상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언론지상에서 받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지향점이 똑같은 지역, 똑같은 축제의 유흥으로부터 지자체가 탈피할수있는 대안은 없을까? 무언가 개성있는 지역을 만들수 있는 전략은 없는것일까? 이에대한 대안으로 현재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지역마케팅이다.

문화관광축제를 통한 지역마케팅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활성화

미래학자들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문화관광산업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문화관광부 역시 관광수익증대와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문화·관광산업에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고부가가치 외화

획득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개최되는 문화관광축제는 지역 이미지 제고, 관광객 유치로 주민소득 증대, 지역문화진흥, 더 나아가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문화관광축제를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지역축제를 바꿔보자

현재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크고 작은 지역축제들은 약 1000여개에 달하지만, 그 중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호응을 얻어 성공한 축제는 금산인삼축제, 이천도자기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보령머드축제 등 불과 10여개뿐이다. 그 이유는 지역의 모든 자원을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하고 축제기획에서 운영, 그리고 관광객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 관광상품개발, 재원확보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축제의 시대

종합축제의 시대는 흘러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제는 지역축제로 보통은 종합 축제를 일컫는다. 이 종합축제는 국태민안과 한 해의 풍농·풍어를 기원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계승하고 향토문화에 대한 관심을 통해 지역주민 모두의 화합과 향토애 고취에 기여하고자 만든 축제의 전형이다. 그래서 234개 기초 자치단체의 대부분이 이런 축제를 하나씩은 갖고 있다. 대부분 1960대 후반에 시작된 이런 축제들은 지역의 특징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제와 체육대회 그리고 지역민의 날을 섞어 놓은 종합 축제였다. 충주의 우륵문화제, 영월의 단종문화제, 남원의 춘향제, 원주의 치악제, 부안의 매창문화제, 양양의 현산문화제처럼 대부분의 지자체의 오래된 축제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축제들이다. 이런 종합축제들은 198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이농현상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 그 이후 종합축제는 모양새만 축제이지 지자체의 연례적인 행사처럼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종합축제 일색이었던 1990년대 중반, 우리는 새로운 개념의 축제를 만난다. 바로 문화관광축제이다. 문화관광축제는 축제를 개최하여 외래 관광객을 지역으로 불러들임으로써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축제이다. 그러나 이 문화관광축제는 새롭게 만든 축제는 아니다. 기존의 지역의 축제 가운데서 관광 상품성이 있는 축제를 선정하여 육성하는 축제의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축제이다.

문화관광축제는 재미있는 축제다.

대부분의 문화관광축제는 축제의 소재가 바로 축제의 이름이 된다.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축제를 만든냐에 따라서 축제의 성공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관광객들이 축제의 이름으로 축제의 재미를 떠올릴 수 없다면 그 축제는 성공할 수 없다. 문화관광축제는 말 그대로 문화 + 관광 + 축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문화적 관점에서 볼때, 문화관광축제의 자원은 지역의 문화에 기초하면서 타 지역과 구별되는 고유한 문화를 말한다. 관광적 관점에서는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하고 육성하는 목적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경제적 이익을 꾀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는 것이다. 끝으로 축제적 관점에서는 문화관광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그들의 체류시간을 증대시키며 더불어 소비지출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를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다. 즉 문화관광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소재로 하여 만든 재미있는 축제여야 한다.

문화관광축제의 정체가

얼마 전 문화관광부에서 발행한 '2004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서'에 의하면, 축제를 찾은 방문객 중에서 지역주민을 제외한 외래 관광객(외국인 포함)의 비율이 평균 71%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문객들의 1인당 평균 지출 비용이 58,432원으로 나



타났다. 지출 항목에서는 식음료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쇼핑비, 교통비 순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자료와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식음료비와 쇼핑비가 증가함으로써 축제의 수익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관광축제 방문객 만족도 공통 평가 18개의 항목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자료와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개선 또는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축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외래 관광객, 방문객 소비 지출, 만족도 등의 항목에서 이미 문화관광축제는 안정기에 들어섰다. 그런데 '2004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서'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관광객 수용태세는 향상되고 있는데 반해, 축제의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축제 프로그램의 다양성 혹은 재미,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답보 상태이다. 앞서 말했듯이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혹은 체험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이 축제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이며, 이 이미지로 인해 축제의 방문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이 축제의 프로그램이 더 이상 관광객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각 축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

세계적인 축제를 지향하며

이야기를 바꿔서 우리보다 앞서 이런 고민을 했을 만한 다른 나라의 축제들을 살펴보자. 생각해 보면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된 세계의 유

명축제들이 꽤 있다. 프랑스의 니스 카니발,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미국의 마디그라, 영국의 에딘버러 페스티벌, 독일의 뮌헨 옥토버페스티벌, 캐나다의 퀘벡 윈터카니발, 일본의 삿포로 유키마츠리, 중국의 하얼빈 빙등제, 스페인의 산페르민 페스티벌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먼저 세계의 유명축제들의 큰 특징을 살펴보면, 세계적인 축제들은 집단적 신명, 전통성, 생산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프랑스의 니스 카니발,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미국의 마디그라 등은 집단적 신명의 극치를 이루는 축제이다. 이 집단적 신명은 경연(혹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퍼레이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위의 열거된 모든 축제들은 축제의 경제적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 축제들이다. 스페인의 산페르민페스티벌은 400여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세계의 유명축제들이 30년에서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이 축제의 역사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축제의 지속적인 개최를 위해 지역 상가와 시민의 참여, 축제에 대한 토론과 평가 및 교육의 도입, 마케팅 기법의 도입, 매력적이고 독특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다양한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세계의 유명축제들은 보통 12일에서 25일 이상의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오직 하나뿐인 분명하고 매력적인 대표 이미지(혹은 프로그램)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우리에게 독일의 옥토버페스티벌은 맥주축제이고 스페인의 산페르민 페스

티별은 소달리기축제이다. 이렇듯 축제의 이미지가 분명하다. 세계의 유명축제들은 그 축제의 소재가 독창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종합축제인 독일의 옥토버페스티벌은 소재가 맥주이다. 매우 독창적인 소재이지만 물보다는 맥주를 많이 마시는 독일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보편적인 소재이다. 캐나다의 윈터카니발과 샷뿌로의 유키마츠리의 소재는 눈이다. 겨울에는 아주 보편적인 소재이다. 그런데 이 보편적인 소재를 아주 독창적으로 개발하여 축제로 만들었다. 아울러 카니발의 소재는 서양의 보편적 종교인 기독교 문화에 그 소재를 두고 있다.

그 보편적 소재에 경연방식의 퍼레이드를 도입함으로써 아주 매력적인 축제를 만들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세계의 유명축제들은 카니발의 경우는 2월에, 페스티발의 경우는 7월과 8월에 개최되는 경우가 많다. 독일의 옥토버페스티벌이 특이하게 10월에 개최된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방학이거나 휴가철이다. 또 10월은 추수감사절, 중추절 등의 명절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기간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축제를 맘껏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우리의 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부분의 세계의 유명축제들은 광장이나 중심 거리에서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는 서양의 광장문화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예술축제로 대변되는 페스티벌의 경우는 중심가의 기존 공연장을 그대로 축제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의 유명축제들은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혹은 주요 프로그램으로 퍼레이드를 포함하고 있

다. 프랑스의 니스 카니발,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미국의 마디그라는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이 퍼레이드이다. 영국의 에딘버러 페스티벌은 축제성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프린지 페스티벌을 중심가에서 펼치고 있다. 독일의 뮌헨 옥토버페스티벌, 캐나다의 퀘벡 윈터카니발, 스페인의 산페르민 페스티벌에서도 주요 프로그램으로 중심 거리를 관통하는 퍼레이드를 활용하고 있다.

이제는 프로그램이다.

많은 생각들이 떠오른다. 여름·겨울 방학, 12일에서 25일, 중심 거리, 보편적이며 독창적인 소재, 분명한 축제 이미지, 경연 형식의 퍼레이드, 집단적 신명, 지역사회의 참여 등등. 그런데 내 마음에 떠오르는 분명한 느낌이 있다. “세계의 유명축제들은 보통 12일에서 25일 이상의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오직 하나뿐인 분명하고 매력적인 대표 이미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우리에게 독일의 옥토버페스티벌은 맥주축제이고 스페인의 산페르민 페스티벌은 소달리기축제이다. 이렇듯 축제의 이미지가 분명하다.” 이것은 프로그램이다. 우리의 축제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이제는 프로그램이다.

축제의 때 맨찮은 프로그램들

축제성을 잘 살린 춘천 마임축제의 도깨비난장

축제의 역사에 비해 대중적으로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춘천 마임축제를 널리 알리고 예술축제의 한계를



극복하며 진정한 축제적 성격을 갖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으로 탄생한 도깨비 난장은 2년여의 실험을 거치며 도깨비 열차를 통해 상품화에 이르게 된다. 도깨비 난장의 프로그램은 타 장르의 예술을 접목한 메인 무대공연과 그림그리기, 아티스트 벵룩시장, 먹거리 등의 부대 행사가 접목된 난장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현재 도깨비 난장은 춘천 마임축제의 인지도 제고와 재정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눈축제의 주제 한껏 살린 이글루 카페와 눈 미끄럼틀
눈축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눈조각 경연대회이며 태백산 등반을 여행의 주 목적으로 대부분의 관광객은 눈조각 앞에서 기념 사진 촬영 후에 미련도 없이 행사장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겨울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이글루 카페와 눈 미끄럼틀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이 평균 15분에서 45분으로 늘어났다.

시내의 중심거리에서 펼쳐진 줄위의 허공잡이들

안성 바우덕이축제는 남사당패의 상징적 존재인 여자 꼭두쇠 바우덕이를 기리는 축제이다. 주행사로는 안성 남사당 시립 풍물단의 남사당 놀이와 예능 보유자 김대균의 줄타기 공연, 타악 연희단의 이색 타악기 공연 등이다. 부대행사로 안성의 옛 장터가 재현된다. 그런데 시내의 중심거리에서 줄을 펼쳐놓고 전 세계의 내노라 하는 줄타기 명수들을 불러모아 세계 줄타기 한마당을 펼쳐 보였다. 해외토픽에서나 볼 만한 일들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중심 속에서 펼쳐졌

다. 축제가 지역주민들의 삶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도심의 곳곳에서 펼쳐지는 연꽃의 향연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연등행렬이 펼쳐진다. 초파일을 즈음해 성했던 연등행사는 6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의 전통축제이다. 연등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전야제 행사인 연등놀이. 조계사-인사동-종로2가-국세청-공평사거리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3.5m 크기의 대형 사천왕등과 화려한 비천상, 반야용선, 코끼리, 연꽃등을 앞세운 연희단의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연등축제는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의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유럽의 카니발에 버금가는 축제임이 틀림없다. 게다가 체류형 관광객을 불러 들일 수 있는 야간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요즘 유행하는 템플스테이는 또 어떠한가?

지역의 곳곳을 찾아가서 펼치는 무술 시연

충주 세계무술축제의 프로그램에는 찾아가는 무술 시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수안보와 양성과 같은 기존의 유명 온천 관광지뿐만 아니라 주덕과 엄정의 장터와 같이 축제장에서 다소 멀리 떨어진 곳을 찾아가서 펼쳐지는 무술 시연이다. 온천 관광지에서의 무술 시연은 온천관광과 무술축제의 접목을 통해 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꾀한 것이고 장터에서의 무술 시연은 축제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한 배려였다.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축제의 리모델링 사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지역의 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축제 프로그램은 전례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모방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운영이 부실하여 지역민이나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축제의 소재는 좋으나 축제의 매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축제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나 천안홍타령축제는 축제의 소재는 리모델링을 통해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탄생과 성장

‘안동민속축제’라는 이름으로 이미 1968년부터 1996년까지 28회에 걸쳐 축제가 개최되던 그러나 이 민속축제도 다른 지방의 민속축제와 마찬가지로 시민체육대회와 같이 하는 지방종합예술제의 성격을 띠고 관주도의 동원에 의해 관성적으로 치러지는 축제였다. 결국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는 안동 ‘하회탈과 탈춤을 테마로 선정하고 국내외의 탈춤을 초대하여 적절한 연출과 홍보개념을 도입하였다. 탈춤축제는 개최 첫해인 97년도에는 문화체육부가 선정한 전국 10대축제로 선정되었고, 이듬해인 98년도에는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전국 5대축제로 선정되었다. 축

제기간 5일 동안 각각 10만명 이상이 축제장을 방문하여 성공적인 축제로 변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축제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세계 유명축제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1999년 여름에 안동시장을 비롯한 축제시찰단을 구성, 세계 최고의 연극축제를 참관하였다. 여기에서 터득한 축제의 기법들은 즉시 다음 축제에 반영하였다. 축제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축제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매년 상세한 축제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개최 3년 만인 99년도에 문화관광부 축제평가 결과 전국 2위로 평가되었고,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축제평가에서 계속하여 전국1위 문화관광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시장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노력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처음부터 일본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축제 개최 첫 해인 97년도의 경우 축제프로그램이 축제 시작 2개월 전에 확정되어 해외홍보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일본의 규슈지방을 표적시장으로 정하고 공세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였다.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탈춤축제 프로그램만으로는 유인력이 약하다고 판단, 풍기인삼제, 봉화송이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묶어서 여행상품으로 내어 놓기로 하였다. 일본인들의 기호에 맞추어 ‘송이버섯 채취’를 주상품

으로 정하였다. 이리하여 일본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안동국제탈춤축제 관계자와 지역관광업체대표들로 구성된 홍보사절단이 파견되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일본의 'JR규슈' 여행사가 일본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여 대한항공 전세비행기로 안동지역에 관광객을 송출하기로 하였다. 안동과 가까운 예천 공항이 국내선이라 여러 관계국의 협조를 얻어 후쿠오카 - 예천간 전세기 취항을 가능케 하였다. 이렇게 하여 2차례에 걸쳐 160명씩 관광객을 보내기로 하였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일본 경제의 악화와 한국의 이상기온으로 송이 생산량이 급감, 송이 가격이 일본보다 비싼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당초 320명이던 예약손님이 최종 85명으로 줄게 되었다. 이상 일본시장에 대한 마케팅의 결과를 보면 비록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로 인해 방문객 수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었지만 1) 목표시장을 분명히 하고 2)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 3)일본인의 기호를 정확히 파악 4) 이웃시군과 협조를 통해 새로운 여행상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천안홍타령축제

‘천안삼거리’로 잘 알려진 천안은 1987년도에 ‘천안삼거리 홍타령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시작하여 제4회 축제부터 ‘천안삼거리문화제’로 변경된 뒤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개최되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다른 지방과 구별될 수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더구나 축제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획하고 연출하지 못하고 각 예술단체들이 한두 가지 프로그램씩 맡아서 축제를 개최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결국 축제 방문객의 수도 점점 줄어들었고 지역의 비판여론도 높아지게 되었다. 결국 천안지역의 대표적 시민단체의 하나인 천안시민포럼은 천안홍타령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축제전문가들과 문화예

술인 등으로 구성된 천안삼거리문화제 개선 준비단(7명)은 여러 차례에 걸쳐 준비위원 회의를 개최하였고, 천안홍타령축제의 기본방향을 설정, 준비위원들을 주축으로 한 축제기획단이 구성되었다. 축제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일본의 요사코이 소란마쓰리를 참관하여 축제의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요사코이 소란마쓰리를 참관하고서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공유하게 되었고 이 때부터 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2004년 8월 10일에 마감한 홍타령축제2004에는 총 81개팀에 1,900여명이 경연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며 거리퍼레이드에 43개팀 1,260명이, 자유참가공연에 40여개 팀이 참가를 신청하여 금년에도 성공적인 축제를 예감하고 있다. 필자가 뭇헨 맥주축제 책임자인 비에초렉박사를 인터뷰하면서 뭇헨맥주축제의 성공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한 적이 있다. 그는 ‘우리는 전통을 지키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한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과감히 도입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역축제는 수도보다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열리는 축제가 유명하다.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대신 특색이 있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축제가 성공하기 어렵다. 오늘날 지방이 서울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지역축제이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적 요소를 축제에 반영하되 항상 오늘날의 잠재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시대정신을 읽고 고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신의 축제운영기법을 배우고 도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지역축제도 멀지 않아 세계의 유명축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 _ 김춘식 | 천안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드라마 세트장

그 ‘虛’^허와 ‘實’^실

휴일, ‘완도’에는 사람의 물결이 넘실댄다

남해로 가는 길엔 이미 봄이 무르익고 있었다. 그리고 싱그러운 봄의 향기를 따라 자동차 물결과 사람들의 행렬이 아름다운 바닷가의 남해의 항구 도시 완도를 완전히 뒤덮고 있었다.

여름 휴가철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바닷가 작은 도시를 찾아 나들이를 한 것일까? 그 궁금증은 자동차와 사람의 물결이 흐르다가 한 곳에서 모이는 곳,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면 금방 풀리게 된다. 그곳은 ‘장보고 유적지’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정원으로 이름 높은 보길도의 ‘윤선도 유적지’도 아니며 보길도나 다른 섬을 가기 위해 배를 타야 하는 ‘화흥포항’이나 ‘석장리항’ ‘완도항’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봄이어서 한창 파릇파릇 솟아나는 신록과 상쾌한 공기를 감상하기 위해 ‘완도수목원’이나 다도해의 시원한 풍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상황봉’도 아니었으며, 더위를 피해 은빛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 ‘명사십리 해수욕장’도 아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끝 남해의 완도까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 길에 나선 것은 순전히 TV드라마 때문이다. 바로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역사드라마 한 편 때문에 말이다.

역사드라마 ‘해신’ 세트장, 드라마 인기만큼 ‘인기’

역사드라마가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인기 드라마는 장보고의 일대기를 드라마로 엮은 ‘해신’이라는 드라마다. 중견 작가 최인호가 쓴 역사소설 ‘해신’을 KBS에서 드라마로 제작한 것인데, 연령대나 성별 구별 없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 드라마의 오픈 세트장이 바로 완도에 세워져 있는 것.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드라마 속 한 장면을 구경하려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또는 부모님을 보시고 단란한 가족들이, 또는 유치원에서부터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단체 수학여행 코스로서 해상왕 장보고가 주무대로 삼았던 역사의 현장, 아니 드라마 촬영의 현장 ‘완도’로 발길을 향한 것이다.

완도에서 둘러본 드라마 ‘해신’ 촬영장은 청해진 포구로 등장하는 소세포 오픈 세트장과 당나라의 신라인 마을로 등장하는 ‘신라촌 오픈 세트장’이었다. 소세포 오픈 세트장은 옛날 배가 드나드는 선착장, 12척이나 되는 선박 모형, 객관, 저자거리, 군영, 막사 같은 촬영용 세트와 건물들이 세워져 있고, 완도군 군외면 원불교 청소년 수련원이 있는 산 아래 계곡을 끼고 당나라 거리 풍경과 여각 같은 건물들이 수십



완도의 드라마 <해신> 세트장 전경

동 지어져 당나라의 신라촌 마을을 이루고 있다. 완도의 해신 드라마 오픈 세트장은 세트의 구성과 주변 배경, 세트장의 규모와 섬세한 표현들까지 한층 불만해진 모습이어서 그전에 가보았던 몇몇 세트장에서 내뱉었던 ‘에이 시시해’라는 말을 아이들 앞에서 하지 않아도 돼 그나마 다행이었다.

한바탕 주차전쟁을 치르고

두 세트장 중 소세포 세트장은 방문 당시 현재 진행형의 세트장이었고 신라촌 오픈 세트장은 이미 과거형 세트장이 되어버렸다.

장보고가 당나라 생활을 청산하고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 청해에 진을 만들기 위해 신라, 청해(지금의 완도)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소세포 세트장은 드라마의 촬영스텝이나 연기자들이 아닌 관광객들로 활기가 지나칠 정도로 넘쳐나 오늘 같은 휴일에는 발 디딜 틈조차 없다. 그렇다고 신라촌 세트장이 드라마의 한 장면을 한가롭게 떠올리며 세트장을 둘러볼 만큼 한가로운 것도 아니었다. 청소년 수련원 옆 임시주차장에 주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한바탕 힘들게 주차전쟁을 치러내야 했다. (두 드라마 세트장 주변 도로는 이미 도로보다는 주차장에 가까웠음.)

TV드라마에서 보던 건물들과 소품, 식당에 들러 연기자들의 이름과 기념사인이 식당 벽에 빼곡히 붙어

저 있는 것을 보며 호들갑을 떨던 아이들을 보며 그나마 힘든 관광의 위로를 찾아야 할 형편이었다. 갑작스럽게 생긴 촬영장 주변의 식당들과 기념품점, 상점, 노점상들은 수지를 맞았을지 모르지만 말이다.

‘불멸의 이순신’

오픈세트장이 있는 부안

변산반도에도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4월5일 식목일, 바람은 좀 불었지만 날씨는 포근했다. 겨울에서 봄을 뛰어넘고 바로 초여름이 된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부안까지 그리고 부안에서 다시 길게 늘어진 차들의 뒤통무니를 따라가다 서다를 계속하며 힘들게 격포항까지. 그나마 지루한 여정 때문에 오른 짜증을 변산반도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간간히 식혀주고 있었다.

남해를 끼고 있는 완도처럼 부안도 서해바다를 끼고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곳이었다. 내소사와 개암사, 채석강과 적벽강, 부암담과 변산해수욕장, 격포항과 위도 등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변산반도!

그 변산반도에도 관광객들이 밀물처럼 밀려들고 있었다. 부안의 아름다운 봄 풍경을 만끽하러 온 관광객들이라기보다는 완도처럼 드라마 오픈 세트장을 구경 온 사람들의 물결이 대부분이었다.

격포항에는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선박들이

‘불멸의 이순신’도 전반부 부진한 시청률을 만회하고 일본 극우세력의 독도 망언으로 국민들의 애국심의 표현이 뜨거워져 한 때 시청률이 30%가 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 덕택(?)인지는 몰라도 여름 피서철이나 지역 축제 기간이 아닌데도 부안을 찾는 관광객 수가 엄청났다.

‘불멸의 이순신’ 원작은 김훈의 역사소설 ‘칼의 노래’와 김탁환의 ‘불멸’이라는 소설을 토대로 극본을 구성하여 엮은 드라마로 대부분의 야외 촬영이 부안의 여러 세트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부안의 <불멸의 이순신> 촬영 현장

영상테마파크와 전라좌수영이 중심이 되는 궁항 등지의 오픈 세트장 외에도 격포항에서는 조선 수군의 자랑인 거북선과 판옥선, 왜군 수군의 주력 전투함인 세키부네 등 임진왜란 당시의 선박이 재현되어 있었고, 송림해수욕장 옆의 성천이란 곳에는 왜군의 진지, 그 옆 죽막이라는 곳은 명나라 군대의 진지 촬영 장소로 이용되고 있었다. 부안의 ‘불멸의 이순신’ 오픈 세트장 역시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넘쳐나는 인파로 그 모습을 제대로 감상하기가 어려워 아쉬웠다. 아름다운 주변 풍경 대신 수많은 인파와 그 인파들 틈에서 매상에 열을 올리는 무질서한 또 하나의 풍경을 만나야 했다.

경남 하동에도

대하드라마 ‘토지’의 오픈세트장이

TV 드라마 또는 영화의 인기를 등에 업고 오픈 세트장을 관광 상품으로 삼아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관광 수입을 늘리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완도와 부안 뿐 아니다.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를 드라마로 만들어 방송 중에 있는 SBS ‘토지’의 최참판택 오픈세트장이 있는 경남 하동도 현재 드라마 촬영장 관광 특수를 누리는 지방 중의 한 곳이다.

하동은 드라마 토지의 오픈 세트장과 평사리문학관 등을 한데 묶어 ‘토지민속마을’로 만들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놓고 있으며, 드라마 상영에 힘입어 관광

객의 수가 드라마 오픈 세트장으로 알려지기 전보다 3배 이상이 늘었다고 한다. 드라마 뿐 아니라 영화촬영세트장 역시 영화의 흥행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볼거리를 제공해 인기 있는 관광명소로 떠오르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2004년의 국내 영화의 흥행대작 <태극기 휘날리며>의 세트장이 세워졌던 경남 합천은 영화에 사용된 증기기관차, 탱크 등의 소품을 사들여 영화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많은 관광 수입을 올렸다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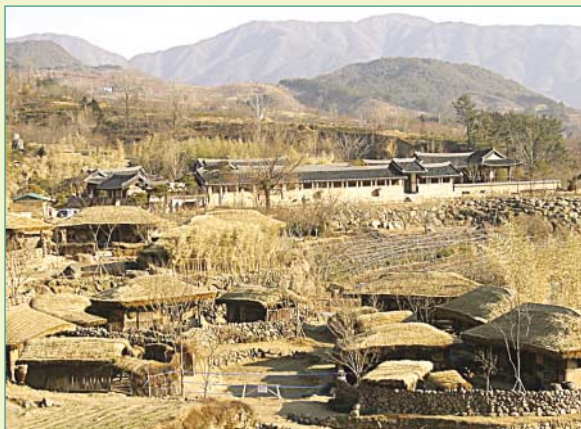
황금 알을 낳는 촬영장?

영화촬영세트장이나 드라마 오픈세트장으로 어떤 지자체는 33억원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 냈으며, 또 다른 지자체는 6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기도 했다는 발표를 보면 ‘촬영장은 관광객을 끄는 보충수표’라는 말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독특한 역사 주변 풍경과 해돋이를 보러 하루에 고작 수십 명 정도의 발길이 서성이던 곳이 <모래시계>라는 흥행 드라마의 촬영지가 된 후 하루 몇 만 명이 모여드는 관광지로 탈바꿈한 정동진역,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지역 내 탄전이 문을 닫으며 지역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 쓸쓸한 폐광의 도시에서 <태조 왕건>이라는 역사드라마의 촬영지를 유치하여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극적인 변신에 성공한 문경시의 경우처럼 영화의 흥행 또는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지자체의 관광 홍보와 관광수입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성공적인 사례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빛 좋은 개살구?

그러나 지자체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흥행보충수표라고 여겼던 수표가 부도가 난 수표일 때도 있으며, 황금알 대신 골칫덩이를 낳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드라마나 영화가 흥행에 참패를 하며 대중들에게 외면당하고 말았을 때 드라마촬영장은 지역문화와 관광의 중심지가 아니라 흉가나 흉물로 변하고 만 것이



하동의 드라마 <토지> 세트장 전경

바로 그런 경우이며, 드라마는 어느 정도 인기를 끌었다손 치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해 흥행(?)수입은 곤두박질치는데 그렇다고 세트장을 철거하자니 투자한 돈이 아깝고 그래서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지자체의 뜨거운 감자가 된 경우도 있다.

어떤 지자체의 경우 세트장 건설을 위해 부지매입비, 시설투자비, 제작비 등 20여 억 원을 투자했으나 2년 동안 지자체가 벌어들인 공식적인 수입은 주차료 7,400만원이 전부였다는 이야기와, 또 어떤 지자체의 경우는 세트장 건설에 드는 비용의 반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을 방송사로부터 제의받고 고민하다가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고 그 만한 관광 수입을 올릴지도 의문이어서 거절하고 말았다는 말은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이 지자체의 구미 당기는 수익모델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 방면과 각도에서 재고해볼 점이 많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발언이라고 하겠다. 촬영장을 유치하기만 하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져 저절로 관광 수입이 늘어나고 지자체의 이미지나 홍보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는 낙관적인 생각은 위험천만한 발상일 수 있으며,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구름 떼 같은 인파에 흐뭇해만 하다가 나중에 계산기를 꼼꼼하게 두들겨보고는 실제로 지자체에서 거둔 수익률의 저조로 실망을 금치 못할 경우도 생기기 말란 법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촬영장이 꼭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된다

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아니 오히려 일부 사람들은 돈을 좀 벌었는지 모르지만 지자체의 독창적이고 전통적인 문화적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가 추구하고 있는 이미지를 심각하게 변질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해야 할 것이다. 영상테마파크란 이름으로 지자체 곳곳에 세워진 드라마나 영화의 세트장, 나름대로 쓸만한 풍광 한 두 곳 갖추지 않은 지자체가 어디 있으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이나 그에 바탕을 둔 문화상품 개발 없이 뜨내기 장삿속 기획자들의 사탕발림에 속아 프로그램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다 거기서 거기인 지역축제처럼 전국은 이제 개성 없는 세트장 물결로 차고 넘칠지 모른다. 대신 오랫동안 이어지고 가꾸어온 소중한 지역문화와 그 문화의 향기 진동시키는 자연과 그 속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는 지역주민들의 정감어린 숨결을 내어주고 말이다.

테마가 있는 영상테마공원

영상테마파크라면 테마가 있어야 할 것이다. 테마는 이야기다. 이야기는 곧 그 지역의 정서와 특성이 담겨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라고도 할 수 있다. 지역문화가 잘 녹아들고 조화를 이루어 재포장되지 않는다면, 오르지 않는 시청률을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연출자를 중도하차 시키고 스토리를 우스꽝스럽게 바꾸다가 자가당착에 빠지고, 연기력이 준비되지 않은 스타들의 대중성만을 무기 삼아 대충 시청률이 나오겠지 하다가 시청자들의 따가운 질책에 두 손을 들고 만 그야말로 쓴 맛을 본 영상매체들의 실패를 답습하는 이름만 그럴듯한 관광지가 될 지도 모를 일이다. 드라마 오픈세트장을 관광하고 돌아오는 길은 웬지 시청률의 저조나 외부의 압력으로 서둘러 끝낸 드라마를 본 듯한 아쉬운 느낌이 들었다. 완도의 보길도를 부안의 내소사와 변산반도 후미진 곳을 보고 오지 못해서 일 것이다.

글 _ 지호진 기자



‘잡종 한류’ 인가 ‘우리 한류’ 인가

대학에 한류를 학문으로 연구하는 대학원이 생기고, 문화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새삼스레 한류 열풍인가?’ 라고 의아해할지 모르나, 한류는 현재 진행형이다. 아니, 이제 비로소 본격적인 ‘문화로서의 한류’가 논의되고 있다. 사전적으로 본 한류의 정의는 ‘1990년대 말부터 동남아시아에서 일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한류는 대중문화를 넘어선 한국의 정신을 담는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 문화가 만나는 교류의 장으로서 한류다.



한국 대중문화, 아시아를 휩쓸다

한동안 주춤했던 한류 열기는 1, 2년 전부터 일본의 ‘온사마 바람’과 함께 다시 폭발적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한류의 시작은 중국이었다. 1996

년,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가 처음 중국에 수출되고, 2년 뒤 한국 가요가 중국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NRG, 베이비복스, 젝스키스 등 젊

은 대중가수들이 중국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중국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이 일기 시작하였다. ‘한류’라는 말 또한 중국에서 만들어졌는데, 1999년 중반 중국 언론이 만들어 붙이기 시작했다. 다른 문화가 매섭게 파고 든다는 뜻을 가진 ‘한류’(寒流)와 동음이의어로 쓰이며 중국 대중들에게 깊숙이 파고든 한국 대중문화는 곧 한류(韓流)가 되었다.

한류를 연구하는 이들은 보통 2000년 중반 이후 한류 열풍을 신한류(新韓流)로 불러 지금까지의 한류와 구분한다. ‘신한류’란 국내에서 현지의 한류 열풍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류 근원지의 문화까지 흡수하려는 움직임을 말한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방영되는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스타를 좋아하는 것을 종전의 한류라고 한다면, 한국 가수의 공연을 보거나 드라마 촬영지를 답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신한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은 이후 대만, 홍콩, 베트남, 타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로 확산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기존의 한류를 퍼뜨렸던 드라마, 가요, 영화 등 대중문화뿐 아니라 김치, 고추장, 라면 등 음식과 휴대폰 등의 한국 가전제품에 대한 선호현상까지 나타났다. 대중문화의 수용 차원을 넘어 한국의 대중문화 스타들, 나아가 한국인과 한국 자체에 애정을 느껴 한국어를 익히거나 한국 제품을 사려는 젊은이들까

지 생겨났는데, 중국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합한족(哈韓族)’이라는 신조어로 부르기도 한다.

‘문사마’ 따라 한국 온 신한류

한국 가수의 공연을 보거나 드라마 촬영지를 답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신한류라고 할 때, 신한류 무리를 이끄는 1등 공신은 바로 탤런트 배용준이다. 몇 년 동안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겨울연가>가 종영될 무렵인 2002년 5월 발간된 <겨울연가 여행안내서>는 일본에서 단행본 베스트셀러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고, 겨울연가 촬영여행 상품 또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겨울연가> 촬영지인 춘천과 용평 등은 이미 한국 관광명소로 일본에 널리 알려졌다.

처음에 한류와 한국관광을 연결시킨 적극적인 한류관광은 1997년 탤런트 안재욱 팬클럽이 준비한 여름캠프에서 시작되었다.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등 8개국 팬들과 탤런트가 함께 참여한 국제 여름캠프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스타와 팬의 교류뿐 아니라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를 알리는 길잡이 노릇을 했다.

한류 관광객들이 곧 관광산업의 노른자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한국관광공사는 발 빠르게 한류 관련 관광 상품을 개발 중이다. 한국관광공사가 만들어놓은 ‘한류관’에는 스타들의 사진을 찍으려는 아시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관광공사는 회사 내에 ‘한류추진기획단’이라는 이름의 정책팀을 만들어 2004년과 2005년 두 해를 ‘한류 확산의 해’로 삼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한국관광공사가 내세우는 ‘한류 확산’은 몇몇의 스타들에 집중하고 의존하는 기존의 마케팅에서 벗어나 우리 전통문화를 비롯해 공연, 요리, 패션 등 한국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해시키려는 뜻을 품고 있다.

2년 전 흥행에 크게 성공한 드라마 <대장금>의 경우 대장금 체험 관광을 상품화시켜, 궁궐 관광과 궁중 문화 체험 등을 관광으로 연결시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짜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내용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일본 잡지에서 한류 스타들을 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류 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한류의 미래를 예견하고, 산업으로서의 한류 가치를 깨달은 이들은 “한류는 우연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끊임없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한류를 적극적으로 소비할 자세가 되어있는 아시아 각국의 소비자들 구미에 맞는 상품을 계속 개발해나가면, 한류의 부가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류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한류의 토대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대중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엘리트들이 늘고, 국내 시장 규모도 커지고, 이들 문화콘텐츠를 지원하는 펀드의 크기도 늘어났다”고 강조한 뒤, “한류가 일어날만한 조건과 토대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류가 처음 거론되기 시작할 때 한류 열풍에 대해 금방 그칠 것이라고 시큰둥하게 반응했던 국내의 많은 언론매체와 문화 관련 종사자들 또한 한류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은 한류 관련 토론회와 전문 문화연구로 이어졌고, 아울러 한류 관련 대학원까지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한류 마케팅에 문화를 담으려는 노력과 함께 문화연구자들의 한류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류 연구에 제일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는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문화연구자들은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잇따라 논문을 발표하며 한류 연구에 나서고 있다. 이들 연구진들이 한류에 대해 바라보는 공통적인 시각은 ‘한류=잡종 문화’라는 것이다.

지난 2월22일 서울 성공회대에서 열린 국제 세미나에서 논문을 발표한 신현준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는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한류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했다. 신 교수는 아시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음악을 ‘가요’가 아니라 ‘K-pop’이라는 고유명사로 전제했다.

한국의 K-pop은 한국의 음악 산업 틀 안에서 만들어진 뒤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권역에서 소비되는 대중음악 및 그와 연관된 문화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국제적 고유명사라는 신 교수의 정의에 따르면, K-pop은 한국 고유의 것이 아니다. 일본의 J-pop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일본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섞임 문화라는 것이다.

신교수는 “오늘날 한류는 한국을 넘어선 아시아의 대중문화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한국 음반산업은 여전히 ‘가요 민족주의’의 좁은 틀에 갇혀 있다.”고 지



적한 뒤, 한국의 가요가 아시아의 문화와 사상을 함께 담으며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소한 한류 개념 벗어나 아시아의 문화로

한편 백원담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와 이동연 문화사회연구소 소장은 함께 광주 5·18 기념재단이 주최한 아시아문화심포지엄에서 한류 관련 발표를 했다. 이들은 한류가 애국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아시아 문화교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원담 교수는 한류의 나라별 수용 방식이 각각 다르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가 본 일본의 한류는 ‘세련된 향수(노스탤지어)의 소비’,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들의 한류는 ‘실현 가능한 부유한 미래의 청사진’, 그리고 대만과 홍콩에서의 한류는 ‘일본 대중문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매체’라고 진단했다. 이에 맞게 각국의 한류 인식 틀을 새로 짜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연 소장은 ‘일본에서의 한류는 일본의 문화와 토양에 맞게 수용된 일식 한류’임을 전제한 뒤, “언제든지 일본 산업의 상황과 입맛에 맞게 폐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냉정한 눈으로 일본에서의 한류를 바라볼 것을 주장했다.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 이들이 도달한 결론은 한류가 애국적인 시야를 벗어나서 아시아 문화 소통의 통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류가 더 이상 한국에서만만의 현상은 아니고, 단순한 마케팅 산업의 차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한류가 가진 문화의 미래를 봐야 한다는 것.

백원담 교수는 “한류 열풍으로 확인한 것은 한 지역의 문화란 문화적 동질성으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이해해야





● 〈겨울연가〉 촬영지인 춘천과 용평 등은 이미 한국 관광 명소로 일본에 널리 알려졌다.

한다는 것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이동연 소장은 문화 주체로서의 시민의 역할을 지적하면서 “아시아 각 나라의 문화연구자들이 각국의 지배적 문화정책에 대해 공동의 개입과 비판의 지점을 확보하고, 주류 상업문화의 소비를 뛰어넘는 비주류 문화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에서는 한국적인 문화를 담고, 밖으로는 한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아시아가 함께 고민하는 문화로 만들어내는 것. 앞으로 한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계속되는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때다.

글 _ 전미영 기자

한류, 학문으로 연구한다

— 중앙대 한류문화아카데미—

한류의 학문화는 가능할까? 최근 한 대학을 중심으로 한류를 학문화 하려는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대학교는 지난 2월 한류문화아카데미를 설립해 올해 2학기부터 한류학 연구과정인 ‘한류 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앙대의 한류 과정은 장기·중기·단기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각각 1년 6개월 코스의 석사과정, 6개월 코스의 전문과과정, 1주일 코스의 체험과정으로 꾸려진다. 한류 과정은 ‘한류에 우리 문화가 빠져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한류문화아카데미에서는 한류에 대해 “서구 중심의 가치관과 문화 위주의 획일적인 세계화,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응하는, 아시아인들이 아시아의 문화정체성을 인식하고, 아시아 각국 간의 문화적 유대감과 동질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향하여 나가는 것”으로 표방하고 있다. 지금의 한류를 “서구의 대중문화를 모방, 답습하는 수준을 넘어 동양적 정서와 가치관에 맞게 독창적으로 재구성하는 ‘문화 창조’의 역량을 보여주

는 계기”로 판단하며 그에 맞는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올해 총장에 취임한 뒤 첫 의욕적인 사업으로 한류문화아카데미를 설립한 박범훈 중앙대 총장은 “지금의 한류는 스타마케팅에 머무르고 있다. 한류가 지속되려면 드라마에서 촉발된 관심을 한국 문화예술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와 인력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는 대학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류 과정의 위상은 ‘국제 문화 대학원’을 지향하고 있다. 한류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외국인들에게 한류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한류의 성과들을 쌓아가려는 취지이다. 한류문화아카데미가 동, 서 문화가 만나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강철근 한류문화아카데미 원장은 “한류가 일시적인 붐으로 그치지 않고 새로운 학문체계인 ‘한류학’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꾸려가겠다”고 밝혔다.

모자간 슬픈 이별 간직한 대구시 ‘고모령’

전통가요에는 단순히 한 때 유행했던 흘러간 노래라고만 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녹아있다. 특히 지역에 얽힌 노래들이 그렇다. 그 곳 사람들 삶이 고스란히 스며있는 한 맺힌 생활의 발자취가 묻어있기도 하다. 1946년 가수 현인(본명 현동주)이 취입해 발표한 <비 내리는 고모령>이 좋은 사례다. 고모령 부근에 사는 한 젊은이가 객지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고생하는 망향초 신세가 되어 일을 찾기 위해 고향 고개 마루를 떠나올 때 어머니와 헤어졌던 이별의 고개를 영원히 잊지 못하고 있다는 애달픈 사연의 가요다.

(1절)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엔 / 부엌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오 / 가랑잎이 휘날리는
산마루턱을 / 넘어오던 그날 밤이 그리웁고나

어머니들의 가슴을 적셨다. 박시춘 작곡, 호
동아 작사의 이 노래는 트로트 풍으로 가사를
윙조리다보면 가슴이 절로 뭉클해져온다.

(2절)

맨드라미 피고 지고 몇 해이던가 / 물방앗간
뒷전에서 맺은 사랑아 / 어이해서 못 잊느냐
망향초 신세 / 비 내리는 고모령을 언제 넘느
냐

대구시 고모동 경부선 기차역 언덕길 배경

노래 제목의 고모령(顧母嶺)을 한자로 풀어보
면 ‘뒤돌아보는(顧) 어머니(母) 고개(嶺)’란
뜻이다. 어머니와 헤어진 한 젊은 아들의 가
슴아픈 사연을 담고 있는 것이다.

(3절) 눈물어린 인생고개 몇 고개이드냐 / 장
명등이 깜박이던 주막집에서 / 손바닥에 그린
하소 줄아가면서 / 오늘밤도 불러본다 망향의
노래

가랑잎이 휘날리는 어느 가을 비오는 날 이별
이 아쉬워 눈물 지며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모자간의 장면이 아스라이 떠올려진다. 노랫
말에서처럼 정든 어머니의 손을 놓고 돌아서
려는데 때마침 부엌이가 울었고 그 아들 역시
눈에 이슬이 맺혔다는 대목도 나온다.

현인 선생은 타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KBS-1TV ‘가요무대’ 프로그램 등에서 이 노
래를 불러 나이 50~60고개를 넘긴 아버지

또 2절과 3절에선 그렇게 떠나 객지신세가



전통가요 〈비내리는 고모령〉의 진원지인 대구 '고모령'의 한 고갯길

된 아들은 어머니와의 이별, 동네 아가씨와의 사랑을 생각하며 향수에 젖는다는 얘기가 담겼다. 노래 속의 아들은 8·15광복 후 어려웠던 시절 직장을 찾았지만 떠돌이 신세의 자신은 언제 고향을 찾을 수 있을까 하소연하고 있다.

가요연구가인 이동순 교수가 이 노래를 '한국가요 베스트 20'의 하나로 뽑았을 정도로 우리 나라 사람들의 대표애창곡 중 하나이기도 하다.

노래배경이 된 고모령은 대구의 남쪽 기차역이 있는 조그만 언덕길이었다. 6·25한국전쟁 직후 고모역 부근에서 〈비 내리는 고모령〉이란 영화를 찍어 더욱 유명해진 이곳엔 지명에 얽힌 전설이 서려있다.

옛날 가난한 집에 남편 없이 남매(오빠와 여동생)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살았다. 어느 날 스님이 지나가면서 “전생에 공적이 모아

라 가난을 벗지 못한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어머니와 자녀들은 공을 쌓기 위해 산봉우리를 하나씩 만들기로 하고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열심히 흙을 퍼다 날랐다. 저녁 무렵 각자 쌓은 봉우리를 비교하니 아들에게 가장 낮았다. 어머니와 딸은 흙을 치맛자락으로 날랐으나 아들은 저고리앞섶으로 했기 때문이다. 화가 난 아들은 여동생이 쌓은 산을 발로 몽개버렸다.(그래서 지금도 뽕족한 산을 형봉, 밋밋한 산을 제봉 또는 매봉, 나머지 지를 모봉이라 부르고 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자녀들이 시기하고 심하게 다투는 걸 못마땅히 여기며 집을 떠나버렸다. 어머니는 속이 상해 떠나긴 해도 어미로서 자식들 생각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고개 마루에 올라 울면서 집을 돌아봤다.

‘어머니가 돌아본 고개’란 뜻의 고모령은 그래서 생겨난 지명이다.



현인은 50년대 초 탕고, 샹송, 칸초네 등을 도입해 삶이 고단한 서민들에게 흥겹고 경쾌한 서구리듬을 전파했던 '최초의 월드 뮤직' 가수였다.

일 찾아 떠나는 아들-어머니 슬픈 이별 담아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에 속하는 그 고개는 엄청나게 달라졌다. 경부선 공사로 산은 잘리고 망우공원, 파크호텔 등이 들어섰다. 조선초기 선비 전백영의 후손이 산소부근에 심은 향나무가 팔자 모양을 나타냈다고 해서 지어진 팔현마을을 거쳐 고모역으로 이어지는 옛 고갯길만이 전설을 들려주는 듯하다. 개발공사로 노래에 나오는 부엉이는 물론 맨드라미, 물방앗간, 주막집도 모두 사라지고 없다.

현인의 데뷔곡 〈신라의 달밤〉과 〈군세아라 금순아〉 〈베사메무초〉 〈럭키 서울〉 〈고향만리〉 〈인도의 향불〉 등과 함께 불러 히트한 이 노래는 지금도 국민들의 애창곡으로 뽑힌다. 고인은 1919년 12월 14일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출신으로 경성 제2고보(현재 경북고)를 나와 일본 우에노음악학원(현재 동경 예대)에서 성악을 전공한 정통파 음악학도였다. 음악

대 교수를 꿈꾸다 현대사의 격랑에 휩쓸려 대중가수로 나섰던 그는 남인수, 고복수, 김정구, 고운봉 씨 등과 함께 한국가요 1세대다.

흰칠한 키와 외모, 호방한 성품으로도 인기 높던 그는 일본유학을 마친 뒤 성보악극단에서 노래지도를 하다 징용을 피해 황해, 진방일, 박단마 등과 신태양극단을 만들어 중국으로 건너갔다. 국내 데뷔 시기는 중국서 돌아온 1946년. 작곡가 박시춘의 권유로 취입을 준비하던 그는 1947년 서울 명동 시공관에서 열린 영화 〈자유부인〉 개봉축하공연 때 음반 취입도 안 했던 〈신라의 달밤〉을 처음 불렀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관객들이 발을 구르며 놓아주지 않아 내리 아홉 번을 부르면서 겨우 무대를 내려온 일은 가요계의 유명한 일화다. 고인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등 외국어가 유창해 한국에 온 프랑스 가수와 샹송을 같이 부르곤 했다.

고인은 1940년대 초 일본 동경, 중국 상해 등

지에서 활동하다 해방 후 귀국, 이 노래를 취입했다. 1974년부터 7년 동안 미국생활을 하며 잠시 무대를 떠났으나 1981년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노래를 불렀다. 특히 1999~2000년 봄까지 은방울자매, 남진을 비롯한 후배가수들과 악극 ‘그 때 그 쇼를 아십니까’에 출연, 전국순회공연을 갖는 등 노익장을 과시하기도 했다.

지금은 공원 · 호텔 등 들어서고 큰 길 뚫려

2002년 4월 13일 오후 9시 45분 평소 앓아온 당뇨합병증으로 서울 풍납동 현대아산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83세의 일기로 숨을 거

둔 고인은 평소 다녔던 서울 오류동 평강제일교회를 거쳐 경기도 성남시 삼성공원묘원에 잠들고 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실린 음반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힘겨웠던 그 때 그 시절을 짐작케 한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굵은 남성적 목소리에 떠는 창법으로 유명했던 그가 남긴 노래는 1천여 곡. 부인(김미정 · 75)과 외아들(현재현), 딸 3명이 있다.

한편 이 노래 멜로디를 만든 경남 밀양출신 작곡가 박시춘 씨는 현인 씨 보다 6년 앞선 1996년 타계했다.



기자가수 _ 왕성상

필자는 남인수가요제에서 우수상을 받은 기자가수다. 경남 마산출신으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와 신문방송대학원을 나온 그는 1970년대 말부터 신문기자생활을 해오면서 ‘이별없는 마산항’ ‘마산포 순정’ 등을 취입했다.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 소속(등록번호 856번)으로 가끔 무대에 서면서 글을 쓰고 있다. wss4044@hanmail.net

전국문화원연합회 부설 문화동력연구소 연구위원(2기) 1차회의

전국문화원연합회 부설 문화동력연구소 연구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견례를 겸한 1차회의를 가졌다.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용역사업의 수행을 비롯 연합회가 의뢰하는 제반 사항의 자문을 위해 10명의 제2기 연구위원을 위촉했다. 제2기 연구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민 (전 민족문학작가회의 자문위원/국제펜클럽 한국본부 고문)
박덕규 (단국대 문예창작학과 교수/한국문예창작학회 총무이사/소설가)
박영일 (전 포항MBC사장/교통방송시청자위원)
이근배 (전 한국시인협회장)
이수자 (전 개포초등학교장/한국걸스카우트연맹 훈련강사)
임종훈 (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홍익대 부교수)
임현영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겸임교수/한국민족문제연구소장)
지기룡 (전 감사원 부감사관/법무법인 해마루 구성원 변호사)
최원현 (한국수필문학가협회 이사/수필가)
홍승찬 (KBS교향악단 운영위원/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경기관광공사, 축제·체험시설 안내서 발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사장 신현태)는 '2005 경기방문의 해' 길라잡이로 도내 체험시설을 소개하는 '경기도는 체험학교'와 축제안내서 '얼썬! 신명나는 경기도 축제나들이'를 발간했다.

도내 체험학교 소개서인 '경기도는 체험학교'는 문화·생태·역사·이색체험으로 섹션을 구성, 총 173개의 체험시설을 소개했다.

특히 토피어리, 분화 등의 체험이 가능한 '꽃무지풀무지', 천연염색과 야생화 솜부작 만들기 등을 해볼 수 있는 '쇠꼴마울' 등 생태체험과 만화기 초실습을 하는 '동지만화박물관'과 같은 이색체험들이 눈길을 끈다.

또한 축제 안내서인 '얼썬! 신명나는

경기도 축제나들이'는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축제들을 총망라한 책자로 크고 작은 축제들과 관광지 소개뿐만 아니라 축제 근처 69개 음식점의 할인쿠폰도 첨부했다. 공사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와 수업제 시행에 따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과 축제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 나온 책자를 활용하면 저렴하고 알차게 가족 나들이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책자는 도내 주요 관광안내소 및 은행, 공공기관 등에 비치되며 시군 교육청과 문화원, 수도권내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각급 기관에도 무료로 배포된다
(출처:내일신문)

과천문화원, 제 10기 역사문화아카데미 개강

과천문화원이 매년 열고 있는 역사문화아카데미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 올해는 4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22주 과정으로 개강된다.

‘한국역사의 특성’을 주제로 시작된 첫 강의는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이성무씨가 맡아 강의 했다.

전 독립기념관장인 이문원씨, 국사편

찬위원장 이만열씨 등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펼쳐지는 역사문화아카데미는 유목문화, 나라의 정체성과 중국인의 DNA, 답사 등 다양한 주제를 갖고 강의를 진행한다.

수강료는 3만원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150분간 열린다.



원주문화원, ‘치악연가’ 가사확정

“섬~강이 어디메~냐 치악이 여기로 다 산~평의 울음섞~인 종소리 구슬~파...”

원주문화원(원장:박종락)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원주를 널리 알리기 위한 원주가요 치악연가의 가사를 확정했다.

원주가요 만들기 사업은 박종락문화원장 취임 공약사업으로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원주를 떠올리며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2

년 11월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가사를 공모해왔다.

치악연가는 일반 시민 응모작을 노래로 만들기에는 부족해 가수 정수라가 부른 국민가요 ‘아~대한민국’을 작사한 원주 연고의 박건호 작사가가 노랫말을 만들었다. 원주문화원은 올해안으로 원주가요 치악연가의 노랫말에 곡을 붙여 시민들은 물론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출처:강원일보)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토론회 열려

한국예총이 주최하고 대구예총이 주관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범 예술인 토론회'가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영환 한국예총 부회장, 김기봉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공동추진위원장, 김현모 문화관광부 지역문화과장, 정하영 대구시 문화체

육관광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지역문화진흥법은 중앙과 지방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분권화를 이루기 위해 제정 추진중인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그동안 수차례의 워크숍과 법안소위원회 등을 거쳐 초안이 확정됐다.

“창원 진달래 축제 오세요”

경남 창원시에서 17일 하룻동안 진달래 축제

이날 창원시 북면 외감리 천주산 달천계곡 일대에서는 오전 9시30분부터 제10회 천주산 진달래축제가 펼쳐진다. 산자락이 얹은 천주산 일대에 장관을 이루는 진달래꽃을 배경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풍물공연과 산악마라톤, 백일장, 국악향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되었다.

또 같은 날 창원시 사파동 비음산 진

례산성 정상에서는 창원시문화원이 주최하는 제11회 비음산 진달래축제가 열렸다. 이날 축제는 오전 10시 창원지법 뒤편 등산 진입로를 출발해 낮 12시 붉은 진달래가 뒤덮인 정상에 도착해 진례산성 유래설명과 제례, 평화통일기원문 낭독, 축약과 축무, 초등부 백일장대회 등으로 이어졌다. (출처:조선일보)



경기도, 문화유산 해설사 추가 선발



경기도는 유적지에서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문화유산 해설사 103명을 선발, 5월부터 수원 화성행궁 등 도내 11개 관광지에 배치키로 했다.

문화유산 해설사는 퇴직교원, 향토사학자, 외국어능통자, 대학 관련학과 전공자, 지역문화원 직원 등 유적지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람 가운데 교육 및 수료시험을 거쳐 도지사가 발행하는 문화유산 해설사증을 받은 사람이며, 관광지에 배치돼 현지 안내 역할을 맡는다.

도(道)는 18~21일 문화유산 해설사 지망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시험을 거쳐 103명을 선발, 수원 화성(華城), 안산 성호기념관, 양평 용문산, 포천 반월산성, 가평 현등사, 광주 남한산성 행궁, 광명 이원익 생가, 용인 와우정사, 양주 회암사지, 구리아차산, 파주 반구정 등 11개 관광지에 배치한다.

이로써 도내 22개 시·군 41개 관광지에 배치되는 문화유산 해설사는 모두 410명이 된다.

관광객이 문화유산 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려면 관광지에서 단체로 해설을 요청하거나, 경기도 종합관광안내소(☎031-1330)에 미리 예약하면 된다. (출처 :연합뉴스)

주말엔 음악선물 풍성한 안압지로...

“주말엔 아름다운 야경 속에 전통 국악의 향기가 은은히 울려 퍼지는 안압지로 오세요.”

경북 경주시와 경주문화원이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야경이 아름다운 안압지 경내에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주말 야간공연에 들어갔다.

야간공연이 개막한 것은 지난 9일부터. 올해 첫 안압지 야간공연이 막을 올리자 지난해 4월17일 안압지 상설대 개장 이래 가장 많은 1만여명의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객석에 몰려 들었다. 전통예술원 두드리풍물단의 ‘열음굿’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최정

임무용단의 ‘전통 장구춤’과 ‘살풀이’, 야단법석의 ‘전통타악 퍼포먼스’, 모던팝스오케스트라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연주, 소프라노 박수연의 가곡 열창, 팝가수 유혜진·유지혜·박현주·조태복씨의 영화주제곡 메들리 등이 이어졌다. 경주시와 경주문화원은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9시30분까지 천년 고도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악(樂), 가(歌), 무(舞)를 중심으로 한 전통공연에 현대성을 가미해 다채로운 문화예술 무대의 흥취를 선사할 계획이다. (출처:세계일보)

춘천박물관, 어린이 전통문화체험교실 열어

국립춘천박물관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문화체험교실 - 학교연계 체험학습"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마다 운영한다. 이번 체험교실은 아이들에게 교과과정에 나오는 내용을 박물관에서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열린다. 이론중심의 학교교육에 박물관이 체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전통문화에 대해 바로 알고 재밌게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

대된다.

이번 체험교실은 학급단위로 신청을 받으며, 매회 3천 원 가량의 재료비가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학교는 박물관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혹은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 문의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사
민길홍 033)260-1523
FAX. 260-1529

제주문화포럼, 제57회 시민토론회 개최

제주문화포럼은 8일 오후 풍야갤러리 문화원에서 '제57회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전시공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제주미술에 있어서 전시공간의 현황을 살피고 더 나은 문화 공간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영재씨(제주문화예술재단 연구사)는 '제주도 전시공간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현재 도내에서는 문예회관 전시실과 갤러리제주아트가 그나마 작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며 "제주도 미술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사설 갤러리에 대한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공전시장의 기획력은 공익성과 도민의 공감대를 무시할 수 없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고도의 기획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생존작가들에게 있어 사설화랑의 역할은 결정

적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의 경우, 전문적인 안목에 의해 작가를 선정하고 기획, 관리할 수 있는 화랑이 전무한 실정. 이에 대해 이씨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도와 작가 그리고 사설화랑간의 어떤 컨센서스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출처:제주일보)



문화재청, 궁·능 「시간제관람권」 제도 운영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등 정기적인 시간에 시민들이 궁·능을 낮은 관람료로 연중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궁·능 시간제관람권」을 운영한다.

「궁·능 시간제관람권」은 「시간제 관람권」을 구입해 1년간 점심시간 또는 아침시간에 창경궁과 종묘 덕수궁 경복궁 14개 능원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1년 동안 점심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정기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시간제관람권」은 창경궁과 종묘, 덕수궁 14개 능원은 3만원이며, 경복궁은 5만원이다. 또 2인 동시관람권은 경복궁 창경궁 종묘 덕수궁 14개 능원 모두 10만원이다. 창경궁과 덕수궁 경복궁 종묘와 12개 능원은 점심시간에만 시간제 관람을 운영하며, 아침시간은 시간제 관람을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정릉」과 서울 성북구 「정릉」등 2개 능은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모두 「시간제관람」을 운영한다. 이 능은 오전 6시부터 9시, 정오부터 오후 1시 등 각각 3시간과 1시간 동안 모두 3만원의 「시간제 관람권」을 구입하면 1년동안 이 시간에는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다.

한편 14개 능원은 서울 성북구 「정릉」, 서울 서초구 내곡동 「현인」, 서울 강남구 「선정릉」, 서울 노원구 공릉2동 「태강릉」, 서울 성북구 석관동 「의릉」, 서울 동대문구 「영취원」,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서오릉」, 경기도 덕양구 원당동 「서삼릉」,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광릉」,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용건릉」, 서울 노원구 공릉 2동 「태강릉」, 경기도 김포시 풍곡동 「장릉」,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홍유릉」, 경기도 파주 조리읍 「공순영릉」등이다.

문화재청의 「시간제관람권」운영은 올 1월부터 궁 관람료 인상과 함께 폐지됐던 점심시간 무료관람제 대신 도심 직장인이나 지역주민들이 점심시간 또는 아침시간에 저렴한 관람료로 궁·능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부터 상시관람제도 운영하고 있다. 1만원인 상시관람권을 구입하면 1개월동안 언제든지 창경궁과 종묘 덕수궁, 14개 능원을 궁별 또는 능원별로 관람할 수 있다. 그러나 경복궁의 1개월 상시관람권은 3만원이다.

‘창작연희본’ 공모 시상 2억여원 지원

전통연희개발추진위원회는 올해 '창작연희본' 공모를 거쳐 선정된 우수한 작품에 대해 상금 및 공연비용 등 총 2억 2천 5백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최우수 희곡작품에는 천만원, 우수 희곡작품에는 5백만원의 고료(3편)가 지급되며, 이들 창작연희본은 유능한 공연단체 및 작곡가와외의 공동작업을 통해 2005년 하반기에 제작, 공연될 예정이다.

공모대상은 국내외 미발표 창작연희본으로 연희본의 구성형식은 악가무(樂歌舞)를 요소로 하는 전통연희를 바탕으로 한 무대극이나 마당극 모두 가능하다. 단, 국내외 학위취득용 연구작품이나 외국작가의 작품, 그리고 이를 리메이크한 작품은 공모에서 제외한다. 공연단체의 지정은 작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할 것이

다. 특히 2005년 사업에서는 선정 작품을 기존의 3작품에서 4작품으로 증편했다. 공연지원금 역시 최우수 희곡 작품에 대한 공연 지원금 5천만 원을 비롯 지난해에 비해 예산을 증액해 보다 많은 극단과 단체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앞으로도 전통연희개발추진위원회는 전통연희의 개발과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연희가 현대에 새롭게 재창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신청서 접수 : 전통연희개발추진위원회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 1동 88-3 서울 성북 우체국 사서함 158호, ☎02-3409-4726, 019-214-0335)

광복 60돌 ‘베를린에서 DMZ 까지’

광복60주년기념 문화사업추진위원회는 세계평화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베를린 장벽과 DMZ 설치물을 활용한 작품을 전시하는 '베를린에서 DMZ까지'의 참여 작가 명단을 발표했다. 광복60주년기념 문화사업인 '베를린에서 DMZ까지'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경기도, 전주시, 그리고 부산을 순회하며 베를린장벽과 DMZ 설치물을 응용한 조형물, 설치미술, 비디오아트 등 총 20점의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로, 개막식은 6월 15일 서울 올림픽 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들 작가군은 작품 구상을 위해 지난 4월 10일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일반인의 출입이 어려운 을지전망대와 제4땅굴이 있는 휴전선 일원을 방문한 바 있다. 아울러 추진위 측은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 철거된 베를린 장벽의 조각 1점을 응용한 작품으로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시팀은 백남준의 작품이 일정한 기간 동안 국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베를린 장벽 외 DMZ 대북 심리전 장비에 대해 작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 정책홍보팀 임영하 02-3704-9045)



부여문화원, '신동엽 문학기행'

지난 10일 부여문화원(원장 윤준웅)에서는 신동엽 시인이 문화관광 '4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신동엽 문학기행'을 실시했다

'신동엽 문학기행'은 문학동호인, 학생, 일반인, 유족 등 1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생가·시비·묘소 등 신동엽 시인의 유적지 일원에 대한 답사로 이날 오전 9시 30분 부터 오후 5시 까지 하루 일정으로 진행됐다

답사코스는 신동엽 시인의 '생가 → 시비 → 묘소 → 백마강 → 곰나루(공주) → 우금치(공주) → 부여' 순서로 답사가 이루어졌으며, 인병선 유족 대표(신동엽 시인의 처, 침몰생활사 박물관장)와 김인권 부여문화원

사무국장이 답사 안내를 맡았다. 특히, 이번에 실시된 신동엽 '문학기행'은 유족을 비롯한 신동엽 시인 생전에 문학적·인간적으로 교분을 쌓은 문학인 등이 직접 참여해 유적지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 에피소드와 함께 사실감있게 소개해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큰 호응을 얻었으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문학기행'에 참가한 민족문학작가회 표광소 시인(45. 서울)은 "유적지를 하나 하나 답사할 때 마다 그 분이 살아오셨던 흔적들 또는 글을 쓰는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고 말하며, "글을 통해서만 느껴왔던 신동엽 시인의 시심을 관련 유적지를 답사하며 직접 체험하니 무척 감동적이다"라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아세안 언론인 대표단 문화관광부 방문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언론인 대표단 32명이 4월 12일 오후 문화관광부를 방문했다. 이들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의 회원국 출신으로 구성된 취재진으로 외교통상부 주관 사업인 '한국 아세안 언론인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방한하게 된 것. 회원국별 3인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언론인 대표단은 문화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 쇼핑과 관광, 김치와

인삼 등 한류와 한국의 문화산업, 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고, 아울러 오는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속초에서 열리는 제 7차 ASEAN+3 NTO(한·중·일) 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남달랐다. 4월 11일 방한한 이들 언론인 대표단은 8일 동안 한국관광공사,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예술의 전당, 영화진흥위원회, MBC 대장금 테마파크 등을 방문해서 한국문화산업에 대한 현장체험을 했다.

완주문화원, 완주사료집 “효자·효열편” 발간

완주문화원(원장 구영철)은 완주군의 정체성 확립과 효사상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효·열에 관한 정려비를 수립 '완주군 사료집' 책자를 펴냈다. 완주지역은 유구한 전통문화와 문화재를 많이 보존하고 있어 찬란한 역사와 문화예술을 꽃피웠고 넉넉한 인심과 올바른 예향 전통을 이어온 고장이다. 이번 발간된 '완주군 사료집'은 완주군의 각 읍면별로 현존 100여개의 정려비를 직접 답사하여 자료를 수

집 정리한 것으로 효열사상을 널리 보급하여 옛 선인들의 정신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전혀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효자·효열편에서는 집안에 전하는 족보를 근거로 정확한 제원과 사진자료를 제공했고, 효열과 관련있는 찬양문이나 교지도 수록되어 있다. 또 각 비석, 비각, 편액, 비문사진과 함께 이에 얽힌 사연도 소개했다. (출처:전북도민일보)

남원시 여성교육문화원, 여성사회교육 개강

남원시 여성교육문화원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기능인력 배출을 위한 2005년도 제1기 여성사회교육 개강식이 수강생 및 내외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교육기간은 7일부터 4개월 과정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한식조리과정을

비롯 의류리폼, 비즈공예, 프레스플라워, 생활제과제빵 등 기술교육과정과 사군자, 문인화, 서예, 영어, 일본어 등 문화교양교육은 물론 건강교육 및 노인여성들을 위한 노래교실, 한글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 (출처 :전북도민일보)

진안문화원 향토사 연구소, 정여립 학술보고서 발간

조선 중기 때 역모 혐의를 받고 자결했던 정여립(1546~1589)에 관련해, 오늘날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회자되고 있는 정여립 사적지에 관한 전설을 조사·연구한 학술보고서가 발간됐다. 진안문화원부설향토사연구소(소장 이병율)에 의해 엮어진 '죽도(천반산)지역 정여립사적지 사료조사 학술보고서'는 선조때 정여립이 반란을 도모하다가 천반산성에 부하들과 함께 관군과 싸우다가 자결했다는 진안지방의 사적지를 중심으로, 정여립 사건

을 재정립했다. 이 책은 우선 이 지방의 10여 개의 산성 가운데 정여립관련 전설이 집중적으로 전래되어 오고 있는 죽도의 천반산성을 명확하게 조사해 향토사의 종합적 이해와 재인식을 도모, 죽도 천반산 및 죽도지역의 관광자원 개발과 보존에 일조하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마련한다.

또한 정여립의 사건 진상과 전설을 밝히기 위해 구성된 이병율(진안향토사연구소장), 최규영(진안문화원장), 엄기표(단국대학교 강사), 이정덕(전북대

학교 교수) 조사위원들을 중심으로 그간 진안일대를 답사, 분석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소개돼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책에는 정여립에 관한 내용으로 ▲죽도지역 정여립 사적지 사료조사 종합고찰 ▲죽도서당 실제여부와 위치 및 목적고찰 ▲정여립 관련 기록 및 향토사적 고찰 ▲죽도에 얹힌 정여립 전설의 생성과 진행 등이 자료 사진과 사료조사에 얹힌 다양한 전설, 정여립 일대기가 기록돼 있다. (출처:전라일보)

나주, 역사·문화 알기 버스투어

나주시에서는 전통문화유산과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펼쳐진 마한 문화권을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으로 나주역사·문화를 바로 아는 시간을 갖는다. 4월 26일부터 5월 5일 열흘 간 체육대회에 참여한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1일 1회 3시간 코스로 2개

의 코스가 있다.

홍수날 : 동문밖 석당간→망하루,금성관→정수루 →목사내아→향교→정렬사→완사천

짙수날 : 강변도로→양암바위→미천서원 →영모정→복암리고분→반남고분→불회사→배박물관



나주시 <배 박물관>

김천 문화원, 매계 백일장 주최

조선 성종때의 대학자로 명성을 떨쳤던 매계 조위 선생의 문학 업적을 선양하기 위한 제26회 매계백일장이 4월 14일 김천시 봉산면 인의리 매계선생의 유택인 봉계 율수제에서 개최됐다.

김천문화원이 주최하고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교육청, 김천교육청, 전국문화원연합회 경상북도지회, 창녕조씨 문장공파 대종회에서 후원한 이번 백일장에는 김천시와 상주, 문경, 영천, 칠곡, 군위, 청도 등 도내 인근 시군에서 초·중·고 학생 1천 500여명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루었

다. 이번 백일장 시제는 초등부 저학년 운문부 「안경」 「지우개」 산문부 「별명」 「축구」 초등부 고학년 운문부 「빨래」 「사진」 산문부 「얼굴」 「이름」 중·고등부 운문부 「약속」 「거울」 산문부 「독도」 「상처」 등이 제시됐다. 이번 백일장 입상자는 대상 2명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함께 장학금 20만원이, 김천시장상, 김천교육장상 등 장원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10만원이 각각 전달된다. 그 외에 차상, 차하, 참방으로 구분되어 약 300여명의 학생에게 상장과 부상이 전달된다.

독도* 20문 20답

일본인들의 독도 망언이 들려오는 요즘.
진정 우리는 독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모아 20문 20답으로 정리해 보았다.

□ 현재 독도의 정확한 주소는?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서도:산1~26, 동도:산27~37)

1968년 5월에 시설물 건립에 착수했다. 그 후 1981년 10월 14일 독도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에 등재했고, 1987년 9월 23일 사망할때까지 독도에 거주했다.

□ 독도 이름 변천사는?

- 우산도(宇山島)-삼봉도(三峰島)-자산도(子山島)-석도(石島)-독도(獨島)

□ 독도의 소유권은?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 울릉도에서 얼마만큼 떨어져있는가? 또 독도에서 가장 가깝다는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도에서는 얼마나 떨어져있는가?

-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4km, 일본 시마네현 오끼섬에서 북서쪽 약 157.5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 독도에는 생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가?

- 동도에는 나라를 지키는 경비대가 생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유인등대, 숙소 및 막사, 초소, 지정통로, 정수시설 등 10여가지가, 서도에는 김성도 부부가 생활하는 민가를 비롯하여 어업인숙소, 선착장 등 6가지 정도의 시설물이 있다.

□ 독도는 ()을 통해 이루어진 ()섬이다.

- 화산활동, 화산섬

□ 독도 어장으로서 가치는?

-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 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연어, 송어, 대구,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해저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 등의 해양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다.

□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는가? 일본 오키도 섬에서는 보이는가?

- 청명한 날에는 울릉도 고지에서 뚜렷히 보이나 오키도 섬에서는 불가능하다.

□ 독도 지하자원으로서 가치는?

- 독도 주변 해역에는 천연 가스층이 존재한다.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메탄이 주성분인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배 많은데다가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며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원이다.

□ 독도는 하나의 섬으로 되었는가?

- 아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 2개의 바위섬과 주위의 약 88개의 바위·암초로 이루어져 있다. 동도는 최고봉 98.6m, 서도는 최고봉 168.5m이다.

□ 독도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이주한 사람은 누구인가?

- 처음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은 최종덕씨이다. 그는 1965년 3월에 울릉도 주민으로 도동어촌계 1종 공동어장 수산물 채취를 위해 독도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 동해의 천연가스 물질을 수치로 계산하면 어느정도인가?

- 약 6억톤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돼 있다고 추정되며 이는 국내에서 30여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개발된다면 약 200조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예상된다.

□ 독도를 지켜온 사람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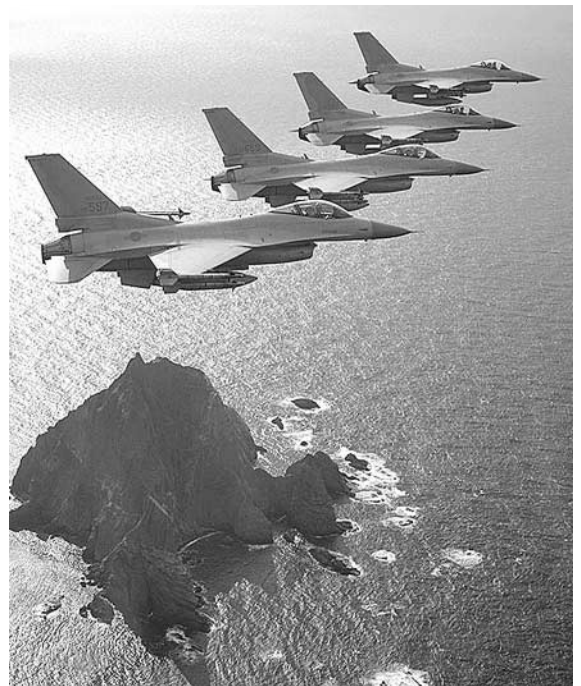
-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시대 안용복 장군, 1953년부터 3여년동안 울릉도의 민간인들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 1981년 10월 독도로 주민등록증을 옮기며 독도 최초의 주민이었던 최중덕씨, 그에 이은 조준기씨, 송재욱씨, 그리고 독도 유일한 민간인으로 생활하였던 김성도씨가 독도로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마지막으로 1년 365일 독도를 지키고 있는 독도경비대가 있다.

□ 독도경비대는 어떻게 이루어 졌나?

- 1956년 12월 25일 독도의용수비대가 완전히 철수하고, 1996년 6월 27일 경북경찰청 울릉경비대가 경비 임무를 인수할 때까지 독도수비는 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와 경북경찰청 318전경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현재는 동도에 헬기장 및 첨단 경비시설을 갖추고 2개월마다 울릉경비대 34명의 인원이 교대 근무하고 있으며, 독도등대에는 해양수산부소속 공무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논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 1952년 1월 일본이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52년 1월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통칭 평화선)'을 발표했다. 일본은 열흘 뒤인 1952년 1월28일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獨島: 일본 호칭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내 왔다. 이것이 독도 영유권 논쟁의 시작이다.

□ 한국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항의를 일축하고,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고유영토일 뿐만 아니라, 2차 대전후 1946년 1월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지령(SCAPIN) 제677호로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판정하여 한국에 반환했으며, 또 연합군 사령부가 훈령 제1033호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거듭 재확인했음을 상기하라고 지적하였다.



□ 일본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오랜 옛날부터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모르는 것인가? 독도는 언제부터 한국 영토였는가?

-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于山國)이 신라(新羅)에 병합된 때부터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三國史記)'의 두 곳(新羅本紀 지증왕 13년조와 烈傳異斯夫조)에 기록되어 있다.

□ 혹시 '우산국'의 영토는 '울릉도' 뿐이고 '독도'는 우산국의 영토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도 모두 우산국 영토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고문헌이 있는가?

- 물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 ①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
- ②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
- ③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기타 여러 고문헌을 들 수 있다.

□ 해양수산부의 독도 관련 사업은?

- 해양수산시설 설치와 관리

- 각종 연구조사사업 실시

- 독도박물관 운영지원

- 독도자료실 설치

- 독도현장견학 등 홍보활동 실시

□ 동해에서 EEZ(배타적 경제수역)획정은 어느나라와 합의하는가?

- 대한민국 · 북한 · 일본 · 러시아가 합의해야 한다.

동해는 각국이 200해리 EEZ를 선포하기에는 좁아서 중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EZ획정'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나라 영토의 어떤 부분을 'EEZ기점'으로 선택하여 공포해야 하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의 합의가 필요 없는 주권국가의 선택사항이다.

(참고 - 사이버독도, 아름다운 우리섬 독도, 독도수호대, 사이버독도닷컴,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독도 학회장 신용하 교수의 100문 100답에서 일부 발췌 편집)

글 _ 김보라 기자

□ 독도 관련 사이트는?

- 독도의병대 (<http://www.o-dokdo.com>)

사이버독도 (<http://www.dokdo.go.kr>)

독도박물관 (<http://dokdomuseum.go.kr>)

사이버독도닷컴

(<http://www.cybertokdo.com>)

독도사랑동호회 (<http://user.chollian.net/~zstokdo>)

독도수호대 (<http://www.tokdo.co.kr>)

경북지방경찰청 독도경비대

(<http://dokdo.gbpolice.go.kr>)

독도의 진실 (<http://www.truthofdokdo.or.kr>)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http://www.dokdocenter.org>)

독도학회 (<http://www.dokdoinkorea.com>)

우리 땅* 독도 찾아가는 길



포항서 수요일 빼고는 매일 운항 ... 1인당 왕복 16만원 가량

빼어난 기암절벽들과 여러 종류의 조류들, 웅장한 모습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였다. 이 미지의 섬이 우리 곁으로 한층 더 가까이 다가왔다. 독도 관광시대가 온 것이다. 그간 꼭꼭 숨어있던 독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히 첫 발을 내딛어보자.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그 섬으로의 나들이,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차다.

4월 1일부터 울릉도-독도간 정기 관광유람선(문의:054-791-4488)이 취항했다.

그동안은 포항에서 울릉도를 왕복하는 정기 여객선 썬플라워호가 부정기적으로 독도를 운항하는 날짜에 맞추어 독도에 갈 수 있었다.

주중에는(월~금) 울릉도-독도간(3시간 소요) 정기 관광유람선을 이용하면 되고, 주말에는 썬플라워호 등의 배를 이용하여 독도에 갈 수 있다. 요금은 포항에서 독도까지 1인당 왕복 16만원 수준이며, 물론 폭풍주의보 등의 기상악화 경우에는 출항 자체가 금지된다. 포항에서는 매일 10시에 출항하는 배편을 이용하면 3~4시간 가량 후에 울릉도에 도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속초, 묵호, 후포에서 출항하는 배편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배편이외에도 강릉에서 출발하는 헬기를 이용하여 울릉도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울릉도에서 오후 4시에 다시 포항으로 나오는 배편이 있다. 주말에 독도에 가는 배편이 독도에 들려 오는 길에 울릉도 - 포항으로 향한다

■ 문의

포항항 054-242-5111 묵호항 033-531-5891
속초항 033-636-2811 울릉항 054-791-4811
헬기편 054-791-11106

■ 독도에 입도하려면

독도에 간다고 입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외교통상부까지 동원된 정부의 까다로운 입도절차를 통과한 국민에 한해서만 독도에 입도할 수 있다. 입도승인을 받지 못한 국민은 독도 앞 해상에서 1시간가량 머무르면서 독도의 아름다운 경치, 사진촬영 등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주중에는 울릉도-독도 정기유람선을 이용하여 입도 허가자에 한하여 독도에 입도할 수 있지만, 주말에는 다른 배편이 확보되어야 한다. 보통 2주 간격으로 독도에 입도하는 독도경비대 보급선 일정에 맞추어 해양경비정의 배를 이용해볼만하다.

■ 입도신청 절차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독도는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공개를 제한해 왔으나 제한지역(동도, 서도) 중 동도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입도허가제(승인)를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신청인 (신고서별첨)

- ▶ 울릉군에 신고 (신고서 작성)
 - 숙박체류는 원칙적 불가
 - 각종 행사는 문화재청 협의
- ▶ 여객선사승선요청 (신고필증지참)
 - 여객선의 정원 범위내 선착순 접수

독도입도 신청서 제출서류

- 독도입도신청서 1부
- 독도입도신청자명단 1부 (단체의 경우)
- 학술연구조사 목적으로 입도시 목적, 내용, 장비 등을 구체적인 계획서 1부
- 독도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행사계획서 1부 (행사 개최 7 일전까지)

유의사항

- 입도신고서 작성시 학술연구조사, 각종 행사의 경우에는 구체적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울릉군에 신고를 필한 경우에도 기상여건 및 여객선 형편에 따라 입도 불가 또는 일정이 변경 될 수 있다.
- 독도 입도는 1회 70명, 1일 14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예약시 입도신청일자에 입도가 불가할 수 있다.
- 경우에 따라서는 독도입도시 동도선착장 상륙으로 한정 될 수 있다.

※ 문의사항 : 울릉군청 문화관광과

문의 tel. 054-790-6420

fax. 790-6399

그 밖에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독도관광열차'를 이용하여 가는 방법도 있다. 독도관광열차는 서울역(오전 5시 30분)과 청량리역(오후 11시 30분)에서 각각 출발하는 KTX와 무궁화호를 타고 동해와 포항에 도착, 선박편으로 울릉도에 입도한다. 울릉도에 도착해서는 전용 유람선을 타고 독도 관광에 나선다. 청량리역 출발 동해역 경유 상품은 1박2일이 24만8300원이며, 서울역 출발 포항역 경유는 1박2일 26만4000원이다. 철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orail.go.kr)나 전화(02-736-9111)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고 - 독도수호대 www.tokdo.co.kr)





올 봄 바닷가 사찰로 떠나보시죠 등 뭍 바닷가 사찰로 떠나보시죠

명산명찰이라고 전국 어디를 가나 유명한 산에는 오래전부터 반드시 크고 작은 절들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형 때문일까. 바닷가에 세워진 임해사찰은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예부터 바다는 오지중에 오지였고 절을 운영할 만한 신도마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문화 이번호에서는 봄바람 타고 여행하기 알맞은 바닷가로 향한 사찰을 모아봤다.

망해사, 천년을 이어온 풍경소리 파도소리

망해사(望海寺)의 풍광은 절 이름 그대로이다. 만경강 나지막한 곳, 기암괴석 벼랑위로 망망대해 황해의 파도가 출렁이고 고군산 열도가 내다 보이는 곳에 절이 있다.

『조용헌의 사찰기행』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사찰의 3대 조건으로 호젓하고, 고승이 많이 머무른 곳이어야 하고, 주변 풍광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제 만경평야의 아스라한 지평선 끝자락에서 서해를 마주보고 있는 망해사를 가리켜 3대조건을 충족시킨 사찰이라고 꼽는다.

그는 망해사를 소개하면서 “월급쟁이들이여, 한탄만 하지 말고 해질 무렵 장엄하게 붉은 빛이 감도는 바닷물을 보러 오라. 그 노을빛에 마음을 던져보라”고 말한다. 망해사 전망대에 오르면 수평선과 지평선을 동시에 볼 수 있다. 검은 빨에서 반사돼 하늘빛을 붉게 물들이는 낙조의 장관은 덤이다.

더군다나 넓게 뻗은 갯벌을 샅터 샅터 빨을 헤집는 어부의 일상이나, 노동의 피곤함도 잊을 만큼 광주리가득 백합조개를 담고 서둘러 귀가하는 아낙네의 모습은 한쪽의 수채화와도 같다.

망해사의 창건연대는 자료마다 다른데 대략 7세기

중후반 부설거사가 절을 세워 수도했다고 한다. 부설거사는 자신을 포함해 부인과 두 자녀 모두가 성불한 세계 불교사에 유래가 없는 인물. 그후 당나라의 승려 중도법사(일명 통장화상)가 중창, 조선 인조때 만경 불거촌 출신인 진묵대사가 재건했다고 전해진다. 예부터 고승들이 많이 머문 이유는 망해사는 본시 섬이었고, 터를 감돌고 있는 강한 기운 탓에 터의 기운을 누그러뜨려야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제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망해사 입구에서 하차, 도보로 10여분 거리이다. 망해사 산책로를 따라 망해대에서 바라보는 광활한 평야와 심포항을 눈요기한 후 방파제 언덕에 닿으면 새로 조성된 대형 횃집에서 신선한 횃감과 빨에서 건져올린 각종 해산물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의 낙조풍경도 큰 볼거리. (망해사 063-543-3187, 전북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간월암, 바닷가에 떠있는 암자

서해안의 간월도라는 작은 섬에 자리잡은 암자. 간월도는 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다. 간월암이 섬 전체에 들어섰다가, 바닷가에 간월암이 떠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다. 섬이나 암자 모두 마치 새벽 안개속에 피어난 연꽃처럼 아름답다.



간월암은 당초 무학대사가 머물면서 무학사라 했으나 1941년 퇴락한 절터에 만공대사가 절을 새로 지어 간월암이라 하여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다.

간월암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세속적인 이유를 두 가지 정도 꼽자면, 조수간만의 지형적 이유가 하나. 하루 두 번씩 들어오는 밀물 때는 물이 차서 섬이 되지만 썰물 때는 물이 빠져 육지와 연결된다. 또 하나는 간월도 앞이 밥도둑이라 불릴 만큼 맛 좋은 어리굴젓의 집산지이기 때문이다. 어리굴젓은 어린 굴이 아닌, 아주 작은 굴이다. 이 암자에서 수행했던 무학대사가 이성계에게 보낸 어리굴젓이 궁중의 진상품이 되었다는 얘기가 전해져 온다. 간월도 앞에는 어리굴젓 상가가 줄지어 있다. 타지역보다 색깔이 검고 물날개(굴알에 난 미세한 털)가 많아 발효가 잘된다는데 2주 정도 천일염으로 발효시키면 어리굴젓이 된다. 또 이곳은 어리굴젓의 본산지답게 매년 음력 1월15일 대보름에 굴의 풍년을 기원하는 굴부르기 군왕제가 열린다.

서산에서 간월암까지 시내버스가 수시로 운행한다(40여분 소요). (간월암 041-669-4809,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보리암, 수평선 끝에 걸린 내마음

68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남해도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가 800리 해안을 감싸고 있다. 그 아름다움을 딱히 한 곳으로 한정하기에는 부족했던지 남해에는 무려 12경의 미경이 있다. 그중 제1경이 금산과 보리암이다. 그런데 제1경을 다시 38경으로 나눌 정도니 그 경관을 문자로 보여준다는 것은 애시당초 가당찮아 보인다.

금강산의 한 부분을 떼어 놓았다 하여 소금강 또는 남해금강으로 불리는 남해 금산(681m)은 삼남 제일의 명산으로 일컬어지고,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유일한 산악공원으로 온통 기암괴석으로 뒤덮여 있다. 금산의 원래 지명은 보광산이다. 683년 원효대사가 이곳에 초당을 짓고 수도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한후 산 이름을 보광산이라 하고 보광사라는 암자를 세웠다.

그후 보광산은 금산으로, 보광사는 보리암으로 개명되었는데 조선의 개국과 관련이 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는 태조 이성계가 이 산에서 백일기도 끝에 조선을 개국하고, 영세불망의 영산이라 여겨 산 전체를 비단으로 덮어 준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1660년 현종이 비단 금(錦)자를 넣어 금산(錦山)이라 바꾸는 것으로나마 약속을 지켰고, 보광사는 왕실의 원당으로 삼아 보리암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한다.

금산 정상에 자리잡은 보리암은 일출도 장관이려니와, 보리암에서 내려다 보이는 시선에 막힘이 없고 망망대해라는 공간의 아름다움에 있다. 관광객들이야 보리암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러오겠지만, 불교신도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다른데 있다. 앞서 말한 원효대사가 이절에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절을 세운 유래와 관련이 있다.

불교에서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은 대자대비의 상징으로 중생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 이름을 정성으로 외우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보살이다. 그런 이유로 관세음보살과 관계있는 양양의 낙산사 홍련암이나 강화의 보문사 그리고 남해의 보리암이 우리나라의 3대 기도처로 널리 알려져 있다. 보리암은 특히 수능을 앞두고는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전국에서 모여 드는데, 정성으로 소원을 빌면 반드시 얻는 게 있다

고 한다. 사실 보리암은 사찰의 규모로 봤을 때 웅장하지도 않고 절 자체는 큰 볼거리도 아니다. 경내에는 원효대사가 좌선했다는 좌선타라는 바위가 있고, 부근의 쌍홍문이라는 바위굴이 있는데 38경중 으뜸이라 한다. 보리암에는 부처님의 진신 사리를 모신 삼층석탑(경남 유형문화재 제74호)있다. 석탑의 남서쪽 모서리에 나침반을 놓으면 남쪽을 가리켜야 할 바늘이 북쪽을 향한다. 나침반을 챙겨 가면 여행의 즐거움이 더할 듯하다.

남해읍에서 군내버스가 금산 입구까지 간다. 보리암 주변에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 상주해수욕장의 편의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보리암 055-862-6115,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향일암, 남해 수평선으로 솟는 통쾌한 일출

새해가 되면 향일암은 새해일출을 보러 오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조차 없다. 해를 향한 암자라는 뜻도 적절하려니와 남해 수평선으로 떠오르는 일출은 천하일경으로 국내에서 첫손가락에 꼽힌다. 그러나 일출

■ 보리암



을 꼭 새해에 보란 법이 없으니 언제든지 새벽녘에 찾아가면 일출은 볼 수 있다.

임포마을에서 향일암을 오르는 산길은 제법 가파르다. 중간쯤에선 암벽을 타고 올라야 하고, 암자근처에 이르면 집채만한 거대한 바위 두개 사이로 난 석문을 통과해야 하는 등 등산하는 맛이 쏙쏙하다. 임포마을 입구의 수령 5백년 된 동백나무, 금오산에 있는 흔들바위나 기암절벽 사이로 난 동백나무와 아열대 식물도 큰 볼거리. 앞서 우리나라 3대 관음기도처를 보리암, 홍련암, 보문사를 꼽았는데 하나를 추가해 4대 기도처를 꼽는다면 향일암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수기차역이나 여수시외버스공용터미널 건너편에서 향일암행(06:40-19:00) 시내버스가 수시로 운행한다(40여분 소요). (향일암 061-644-4742,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울림리 임포마을)

홍련암과 등명락가사

홍련암은 바닷가와 접한 사찰로서는 가장 널리 알려졌다. 특히 거친 파도가 바위를 때리며 부서져 내리

는 모습이 씩씩하면서도 남성적이다. 특히 관음전은 법당 가운데쯤에 조그맣게 마루를 뚫어 놓아 그곳으로 출렁이는 바닷물을 실감나게 볼 수 있다. 절 근처 바닷가에는 보기 드문 석간수(石澗水)가 있는데, 이 샘은 원효가 양양에 있는 영혈사 샘물을 석장에 담아 끌어 왔다는 전설이 있다. 지금은 보타전 앞으로 옮겨져 있다. 바로 붙어 있는 낙산사의 원통보전이나 꽃담, 의상대 등 유적과 볼거리가 많다. 동해의 싱싱한 해산물은 덤. 양양에서 시내버스가 수시로 운행되며, 낙산해수욕장과 설악산이 인근에 있다.

(홍련암 033-672-2476,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등명락가사는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정동진과 인접해 있다. 경내에 들어서면 시원한 동해바다를 품고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지럼증을 느낄 정도. 강릉에서 시내버스가 등명락가사까지 운행한다(30분소요). (등명락가사 033-644-5337, 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글 _ 전명찬 | 전국문화원연합회 사업부장



■ 망해사



土에 살고
客과 놀며 品을 파는

‘헤이리아트밸리’ 사람들



“문명인들은 왜 성냥갑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두고 사는가?” 남태평양 티아비아 섬의 투이아비 추장이 현대의 도시문명을 보고 던진 이말은 오래전 읽은 ‘빠빠라기’라는 책에서 보았다. 철저히 아파트 철문의 빗장을 내리고 사는 문명인의 모습에 대한 비 문명인의 질타는 오랫동안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꼬인 실타래처럼 마음 한구석을 짓눌러온 영원히 풀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의 숙제. 그 오랜 과제가 ‘헤이리아트밸리’를 통해 조금씩 풀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

헤이리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를 개척자라 부른다.

원주민 인디언에 대한 침탈과 내침의 서부개척사가 있었다면, 헤이리 개척사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의 품 안에서 시작되는 창작의지가 그들, 개척의 명제이다. 따라서 헤이리 마을엔 스스로의 규약이 있다.

마을의 모든 길은 직선을 배제하고, 곡선으로 이루어진다. 얇은 언덕이 나타나면 언덕을 끼고 돌며, 실개천이 흐르면 물길의 흐름 따라 길을 내고 교량을 만든다. 어디 하나 닮은 것 없이 멋스러워 보이는 집들도 나름대로의 절제와 미학을 닮고 있다.

3층 이상, 지상에서 12미터 이상 높이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모든 건물은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담아야 한다. 콘크리트건 철 구조물이건 시간이 흘러 퇴색된 색채 그대로를 담아야 한다는 말이다. 건물의 외벽이 콘크리트 그대로의 질감과 색상이라면 건물 내부의 벽 또한 그래야 한다. 그래서 그

런지 헤이리 대부분의 집들은 도색되지 않은 콘크리트 구조물 그대로이거나, 녹슨 느낌의 철 구조물, 투명 창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자연 · 대중지향적 종합문화예술 터전 헤이리

파주 농요 ‘헤이리 소리’에서 그 이름을 따 왔다는 헤이리 역사는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언호 한길사 대표(헤이리마을 이사장) 등 출판인들이 중심이 되어 인근에 조성중인 파주 출판단지와 연계된 책마을을 구상한 것이 그 출발의 시작이다.

그러다 이후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이 동참하면서 지금은 종합문화예술의 터전으로 발전했다.

얼핏 돌아보면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이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방승인 황인용의 ‘카메라타 음악 감상실’, 작가 윤후명의 ‘후명원 만묘루’, 이영진 관장의 ‘세계민속악기 박물관’, 구삼본 관장의 인물화 전공



있다. 문을 열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헤이리의 의지는 마을 자치규정에도 잘 담겨있다.

땅은 개인의 소유로 하되 주민 모두가 자기 공간의 40%는 창작과 문화향유 장소로 일반인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주말이면 찾아오는 많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그들은 집 앞 빈터에 텃밭을 일구고 꽃을 심는다. 또한 배움을 찾아오는 전수자들을 위해서 마을 입구에서부터 자연친화적 조형물들로 마음을 들뜨게 한다. 도랑위에 놓인 다리 하나에도 의미와 미적 감각이 담겨 있고, 마을 입구임을 알리는 입간판 하나에도 그들의 창작 의지가 깃들여 있다.

헤이리의 열림은 비단 일반대중만을 대상으로 하진 않는다. 문화예술인의 공동체라고는 하나 그들 스스로가 완전히 서로를 잘 알지 못했고, 직업의 속성상 객체로 존재하는 시간이 많았다. 헤이리에 모이면서부터는 텃밭에 뿌릴 꽃씨 하나를 나누면서도 그들 스스로가 먼저 인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도심의 콘크리트 장막만큼이나 차가운 마음의 단절을 다시금 기워낸 그들의 삶 자체가 이미 예술이지 않은가 싶다.

삶과 창조와 어울림의 산실 아트밸리

한결음 더 나아가 헤이리가 단순한 ‘보여주기의 미

미술관인 ‘93 뮤지엄’, 조각가 김기호의 ‘크레타(레스토랑)’, 도예가 박유나의 ‘유나’, 서양화가 한상구의 ‘한스갤러리’ 등. 또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찜지의 ‘딸기가 좋아’, 정병규의 어린이 서점 ‘동화나라’, ‘씨네펠리스’가 있고 여기에 최근 영화감독 김기덕씨까지 합류했다고 하니 정말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보고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단순히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산다는 것만으로 무슨 대단한 의미가 부여될까?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예술창작 집성촌이라면? 끼리끼리 의식이 부합된, 세상과 단절의 의미라면 오히려 세인의 입방아에 절구질이나 되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이 첫부터 기우인 것을 눈치 채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헤이리 예술마을은 한마디로 ‘열림’ 그 자체이다.

눈치가 빠른 이라면 울타리 하나 없는 집들의 구조에서, 투명 창으로 밖에서도 훤히 들여다 보이는 창작실의 고뇌하는 예술인의 모습에서도 쉽게 느낄 수



학'에서 차별화되고, 진일보했음을 문화평론가 이주현씨는 이렇게 설명한다.

'예술마을 헤이리가 서울의 인사동이나 프랑스의 생 폴방스 같은 문화명소와 다른 점은 무엇보다 이곳이 현업 예술가들의 창작의 터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갤러리, 공연장, 아트숍 등을 갖추고 다양한 장르와 문화 예술을 소통시키고 소비하는 문화의 장은 헤이리 말고도 많이 있다. 하지만 창작의 산실이 동네 구석구석 들어차 창조의 뜨거운 열기가 한데 어우러진 문화마을은 지구상에 그리 많지 않다.'

그의 말처럼 헤이리는 삶의 3박자가 혼재되어 있는 터전이다.

첫째는 그곳이 헤이리 사람들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1차적인 생활의 터전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은 가까운 파주, 금촌의 학교로 등교를 하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텃밭도 일구고, 도랑도 치고, 수없이 쏟아지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잠자리에 드는...

둘째는 그곳이 그들의 생계유지 수단인 비즈니스의 장이라는 것이다. 대다수 마을 주민들은 도심에서 꾸려가던 학원을, 화실을, 화랑을 접고 이곳으로 이주해 왔다. 이곳에서 자택 한켠에 비즈니스의 장인 화실, 화랑, 전시실을 마련하고 수강생들을 맞고 있다. 또한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예술인들의 창작품을 주변 풍경삼아 따뜻한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것은 그곳만의 매력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곳은 그들이 혼신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작품을 잉태시키는 창조의 산실





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헤이리의 건축물들을 보면 대다수 2~3층 구조로 되어 있고, 이중 1개 층은 삶의 터전으로 1개 층은 전시실로, 1개 층은 창작실로 꾸며져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헤이리 정신’으로 그려내는 15만평 공동체 마을

15만평 부지위에 원래 계획대로 300여 채의 건축물이 다 들어서기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이른 듯하다. 마을 곳곳에는 건축 중인 건축물과 건축물을 올리기 위한 터 닦기 작업이 한창이다.

헤이리를 다녀간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도 이곳에서 함께 살 수 없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곳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은 없단다.

‘헤이리 아트밸리’가 기획될 당시에 이미 300여 가구에 대한 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이다. 간혹 이미 분양받았던 이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들이 개인적

으로 일반인에게 부지를 넘길 수는 없다. 대신 헤이리 마을 이사회가 심의를 거쳐 헤이리 정신에 부합하는 이에게 새로 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헤이리 정신이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헤이리 규약에 순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고, 문화예술인으로서 기존 회원들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어떤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자유로를 따라 불과 1시간 거리

황량한 동토에 다름없던 파주의 한 모퉁이에서 일고 있는 예술공동체의 뿌리내리기는 대중의 관심속에 회자되고 있다. 자연친화적, 대중지향적 아트밸리의 실험정신은 세인들 관심의 무게중심을 옮겨오고, 입주주민인 서양화가 한상구씨의 바램처럼 천년역사의 터전은 아니어도 하루하루 구전의 힘을 입고 헤이리의 향기는 더욱 고즈넉히 퍼져가고 있다.

이 다음번 방문에는 또 다른 어떤 작가의, 어떤 미술가의, 어떤 도예공의 창조혼이 가슴을 설레게 할지 새삼 기다려진다.

헤이리 예술마을 찾아가는 길

자유로변 도라산 전망대를 왼편에 두고 20여 미터를 더 달려가면 반가운 이정표가 나타난다.

‘예술마을 헤이리’ 우회전이란 이정표를 따라 자유로를 벗어나 반원을 그리며 100미터쯤 더 달리면 사거리를 만난다. 이곳에서 오른편으로 가면 도라산 전망대에 오르는 버스를 탈 수 있는 주차장이고, 왼편으로 들어서서 약 50미터만 나아가면 곧바로 헤이리 마을 입구임을 알리는 입간판을 만날 수 있다.

글 _ 김효용 | 여행작가



서양화가 한상구의 ‘한스갤러리’에 들르다

자신의 주택이자 작업실이자 전시실인 한스갤러리 앞 마당에서 두 마리의 애완견과 대화하던 그에게 살며시 말을 건넸다. 대문도 없고, 울타리도 없어 쉽게 넘긴 질문에 그도 또한 부드럽게 화답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의 대화는 그의 1층 화실에서 자연스레 이어지고 있었다.



한상구 (서양화가)

Q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나요?

A 서양화를 그림니다. 서울에선 바우미술학원을 운영했습니다. 10년 넘게 학원 운영하며 아이들도 가르치고, 가끔 전시회도 열곤 하였습니다.

Q 헤이리 마을에는 언제 입주했고 왜 이곳 공동체에 합류하기로 했나요 ?

A 2003년 가을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10년 넘게 생활을 뒷받침해 주던 미술학원을 접고 이곳으로 올 때는 막막하기도 했지만,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는다면 결코 작업에 전념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미련 없이 집을 썼습니다. 지금은 작업실에서 이젤을 앞에 두고 앉아 있노라면 진정으로 나를 만들어낼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기쁘기만 합니다. 물론 이곳에서도 수강생들에 대한 가르침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Q 이 정도의 삶이라면 여기 계신 대다수 분들은 어느 정도 성공하신 (자신의 JOB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분들이 아니신지요?

A 물론 많은 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익히 아실 분이요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모두가 그렇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군요. 실제 여기 있는 집들이 독창적이고 전원적이어서 아주 비쌀 것 같지만 사실 도심의 아파트 가격과 비슷합니다. 이곳 부지의 가격이 저렴한 까닭이기도 하구요. 저 역시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현재로서는 여기에서의 생

활이 이전보다 더 낫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험정신으로 이곳으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조력을 더 높이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그 속에서 비즈니스를 이루고, 이러한 긍정적 순환고리 속에서 경제적으로나 개인적 만족도를 더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Q 헤이리 생활이 주는 긴장감 같은 것은 없는지?

A 이곳 생활에 아주 만족합니다. 아이들도 좋아 하구요. 다만 시간이 갈수록 마을 구성원들이 늘어나고, 다들 창의력이 뛰어나신 분들이라 다소의 경쟁심리나 긴장감 같은 것은 있습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을 말하는 것이구요. 어떤 작가가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관심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여기계신 대다수 분들이 작품에 대한 열정이나 욕심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곳 생활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 비즈니스의 터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Q 헤이리 마을이 앞으로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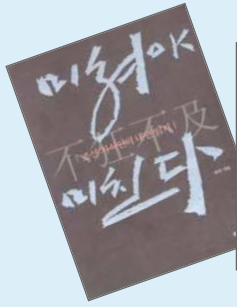
A 천년의 고도 경주를 잘 아시지요. 인위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이미 그 향기가 그윽한 역사의 산실인 것 마냥, 우리 헤이리도 자연스럽게 구전을 타고 대중과 친밀해지는 그런 마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문화를 쉽게 풀어 쓴 책 12

“우리 문화에 빠져봅시다”

한 권의 책은 인생의 좌표가 된다고 한다. 우리문화를 다룬 한 권의 단행본에서 한국문화의 이해와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여기에 12권의 우리문화를 테마로 한 책을 소개한다. 독자들은 이 책들속에서 한국전통문화의 참 맛을 음미해 보으면 한다.

글 _ 김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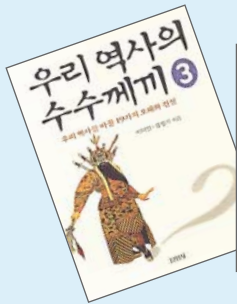
미쳐야 미친다 | 정민 지음 | 푸른역사

한 시대를 열광케 한 지식·예술적 성취속에는 열정과 광기가 숨어 있다. 불광불급(不狂不及),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박지원, 박제가, 정약용, 허균, 이덕무 등 18세기 조선의 지식인. 이들은 당대의 마이너였지만 그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열정과 광기로 말미암아 일가(一家)를 이룰 수 있었다. 이 글을 쓴 정민은 한양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모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아틀라스 한국사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진 지음 | 사계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기술하는 연대기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역사서에 획적인 지리적 공간을 더함으로써 역사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 시리즈 물이다. 실제 지형과 지세를 실감할 수 있는 음영기복 지도를 사용해 한반도는 물론, 옛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의 터전이었던 만주 평원까지 상세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새삼 우리국토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끔 만드는 매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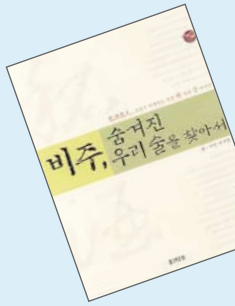
우리역사의 수수께끼 | 이덕일·김병기 공저 | 김영사

치우천왕의 진실, 중국 금나라 태조는 고구려인의 후예인가, 고종황제의 금괴 열두 개는 어디로 갔을까 등의 물음들에 대해서 재밌게 풀어내는 이 책은 한국사의 핵심 쟁점들을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공저자인 이덕일은 인간의 삶이 살아 숨쉬는 역사 해석으로 근작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을 비롯해 많은 인물평전을 기술했다. 또 김병기는 민족주체성에 입각해 우리 역사의 본래 모습을 복원하는데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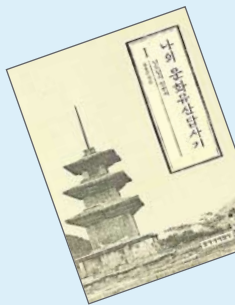
그림속의 음식, 음식속의 역사 | 주영하 지음 | 사계절

현재 우리나라 전통식품의 대명사는 김치지만 100년 전에 조선 사람들에게 김치는 전통 음식은 커녕 획기적인 새로운 음식이었다. 이 책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신봉하는 전통의 대부분은 약 100년을 전후한 시기, 이른바 근대기가 진행되면서 형성됐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우리 음식문화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진 책이다. 이 책을 쓴 주영하는 민속학과 음식사 연구를 주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비주, 숨겨진 우리술을 찾아서 | 허시명 지음 | 웅진닷컴

보지 못해 멀어지고 알지 못해 기억에서 잊혀진 우리 술·비주를 저자 허시명은 발품을 팔고 입품을 들어 찾아내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낸다. 그가 우리에게 내미는 술들은 하나같이 낯설고 처음 듣는 이름 뿐이다. 12대조부터 문중에 내려온 백가지 꽃으로 빚은 백화주, 예로부터 과거치는 사람들이 시험 전날 마셨던 머리맑은 술 잎새곡주 등 전통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사랑을 특유의 문체로 풀어내 우리 술의 참맛을 제공한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 유홍준 지음 | 창비

해방이후 최고의 베스트셀러이자 '살아 숨쉬는 국토허물관'이라고까지 불리는 이 책의 저자 유홍준은 막강한 문화적 담론을 형성하는 인물로 급부상했다. 유홍준의 글쓰기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리얼리즘 이상을 주축으로 우리 조형 전통상의 원리를 지속적으로 현대화해 이를 보편적인 조형언어로 탈바꿈했다. 독자들은 우리나라의 국토가 살아 숨쉬는 박물관이란 새로운 관점에 눈 뜰 수 있다.



한국의 전통마을을 가다 | 한필원 지음 | 북로드

도시인들에게 '전통마을'은 아련한 옛날의 향수를 떠올려주는 눈요기이거나 전통 문화나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관광지중의 하나로 생각되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그곳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질서와 조화가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 한필원 교수는 20년 동안 우리마을을 답사하고 조사했다. 그는 이 책을 시작으로 동아시아의 전통 주거지를 해석하는 일을 필생의 사업으로 삼고 있다.



가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 봉렬·관조스님 지음 | 안그래픽스

한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우리 옛 건축물은 불교 사찰이다. 불교사진작가 관조스님과 불교건축사학자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가 함께 펴낸 <가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은 일반인은 물론 불교계 사람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사찰 건축의 아름다움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절은 어떻게 태어나고 그 속에서 숨어 있는 창건 설화의 내용을 요묘조묘 재밌게 소개하고 있다.



스웨덴 기자 아손, 100년 전 한국을 건다 | 손 그랩스트 지음/김삼열 역 | 책과 함께

1904년 12월 24일부터 1905년 1월 말까지 러일전쟁에서 을사조약에 이르는 매우 긴박한 시기 낯선 이방인의 눈에 비친 위태로운 한반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저자 거리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지게꾼, 빨래터의 여자들, 서울의 기생들, 황태자비의 장례식 광경, 강화도의 포구 등 당시의 상황을 직접 찍고 설명을 단 140여장의 사진은 한국근대사의 귀중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저자는 일본이 한반도 취재를 불허하자 영국인 무역상으로 위장해 밀입국 했다.



주강현의 우리문화 | 주강현 지음 | 아이세움

우리 옛 어른들의 생활사를 재밌게 풀어 우리문화의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다. 구들, 짚풀, 옹기, 한지, 두레 등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다. 우리 고유의 풍물을 소개한 이 책은 '뿌리를 알기 위해 읽자'는 목적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저자인 주강현은 역사 민속학자로서 한국 민속학과 민속 예술론, 북한 문화론 등을 가르치고, 우리 한국 민속과 문화를 중심으로 역사학, 민속학 등 여러 분야의 학문을 아우르고 있다.



고구려의 발견 | 김용만 지음 | 바다출판사

고구려를 문명사의 시각으로 접근한 통사서. '새로 쓰는 고구려 문명사'란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우리가 고구려를 너무 모른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고구려는 '신화' 속의 역사내지 고대 동아시아의 한 강대국이었을 뿐이란게 일반적인 상식. 하지만 저자는 이 같은 평가 대신 고구려가 700년의 역사를 가진 동방의 제국이었으며 중국문화와 다른 독자적인 우리문화임을 강조하고 있다.



고려왕조실록 | 박영규 지음 | 웅진닷컴

교양 역사서 분야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기록된 책으로, 중국 대륙에서 수십 개의 나라가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500년 동안 지났한 삶을 지탱해온 강인한 나라 고려의 역사를 고려의 시각에서 담아내고 있다. 저자 박영규는 '역사 대중화의 기수'란 수식어를 달고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을 출간한 이후 많은 한권으로 읽는 통사 시리즈를 완성해 역사서의 대중화 바람을 일으켰다.

우리문화

- 발 행 : 전국문화원연합회
주 소 : 우)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홈페이지 : www.kccf.or.kr
전 화 : (02)704-2311~3
팩 스 : (02)704-2377
- 등 록 : 라36627(1984.7.12)
- 발행·편집인 : 권용태
- 편집주간 : 채강희
- 기획팀장 : 강민철
- 편집&디자인 : 컬처플러스
우편번호 : 100-013
주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24-3
제복빌딩 303호
홈페이지 : www.cultureplus.com
전 화 : (02)2264-9028
팩 스 : (02)2264-9021
- 인 쇄 : 한국컴퓨터인쇄정보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48-73
전 화 : (02)2275-8106
팩 스 : (02)2275-8107
정 가 : 3,000원

‘우리문화’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고는 우편이나 팩스, E-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자 사진도 첨부해 주시면 편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주십시오)

발행처 :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편집실 : 우)100-013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24-3
제복빌딩 3층 컬처플러스
전 화 : (02)2264-9028
팩 스 : (02)2264-9021
E-mail : cultureplus@hanmail.net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합니다.

우리 문화 속의 성과 로맨스

“나의 아내를 차마 잊을 수 없습니다”(上)

4월의 고궁은 새하얀 드레스와 턱시도의 예비 부부들로 수를 놓는다. 시내 곳곳 음식점 안에도 수많은 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신랑과 신부가 꽃길을 걸어나와 부부의 연약을 맺는다. 두벽 두벽 열댓걸음 걸어나가 금세 주례 앞에 서 버리고 마는 한 박자 빠른 템포의 신랑과 사뿐 사뿐 마치 고무신 뒤편치에 껌이라도 붙은 것처럼 발을 떼는 새하얀 드레스의 신부. 그것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색깔이기도 하지만 가장 슬픔에 가까운 색깔이기도 하다. 이순간부터 신부는 알게 모르게 주위로부터 그 하얀색만큼이나 무거운 순결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박수를 보내는 수많은 친지와 하객들은 어느날 갑자기 돌을 던지는 무서운 얼굴로 돌변하지 모른다.

그러면 신랑은 순결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남성의 순결’, ‘여성’과 ‘순결’이 아침이고 밤이고 서로 아옹대며 지낸 이웃집 같은 사이라면 ‘남성’과 ‘순결’은 평생을 살면서도 한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먼 친척같은 어색한 조어(造語)이다. 우리는 여태껏 여성의 순결과 절개만을 고집스럽게 강요해 왔을뿐 남성의 순결과 절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요즘에 와서야 젊은이들 사이에서 농담식으로 “군화를 바꿔 신지말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나 그것도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그 레이!’ 하는 애원과 협박에 비하면 열세다. 이처럼 남성의 정조는 매우 희귀(?)하다. 이런 와중에 ‘군화를 바꿔신지 않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제주도 지방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 못 남성들로 하여금 체면을 유지케 한다.

어느 시대인지는 정확히는 모르나 서울에 성품이 어질고 나랏일을 잘 돌보는 정승이 한 분 있었다. 그러나 그 정승은 나이가 들도록 오직 홀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날 임금은 그 정승을 불러 물었다. “신은 어찌하여 홀아비로 지냈는고?” “저는 이미 장가를 들었습니다.” 임금은 더욱 이상히 여겨 물었다. “아무리 장가를 갔더라도 부인이 없으니 새로 장가를 들어야 할 게 아닌가?” 그러자 정승은 한 숨을 돌리더니 가슴에 품어두었던 이야기를 풀어냈다.

“저는 제 본부인이 아니었더라면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글공부를 하고 돌아왔을 때 부인이 무엇을 먹다가 슬쩍 허리 밑으로 숨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배가 몹시 고프 터라 ‘부인은 지금 혼자서 무얼 먹고 있었소, 나도 좀 줄 수 없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인은 얼른 내어 주지 않아 빼앗듯 허리 밑을 살펴보니 그것은 황토흙이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글 _ 강민철 | 우리문화 기획팀장
mckang999@hanmail.net